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자동차 산업

글 조수연 | 그림 유경민 | 감수 이충구·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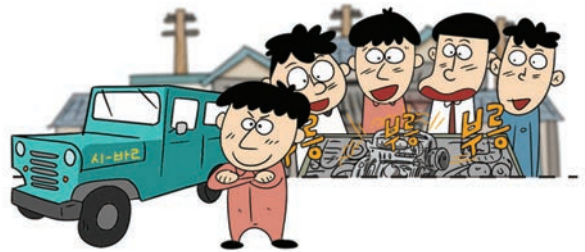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사



차레

프로
로그

기적을 기억하라 | 4



1장

자동차 시대를 열다 | 11

1. 폐하, 자동거(自動車)에 오르소서 12
2. 상류층의 인기를 독차지한 자동차 18
3. 일제 치하에서 싹튼 자동차 정비 수리와 재생사업 26

2장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 33

1. 광복, 자동차의 해방 34
2. 미군 고물차 재생시대 39
3. 6·25 폐허의 땅, 그래도 자동차는 달렸다 41
4. 최초의 국산 승용차 시발(始發) 45
5. 엔진도사 김영삼의 집념 53

3장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 | 63

1. 드럼통 버스의 아버지 하동환 64
2. 자전거에서 자동차까지, 기아산업 김철호 73
3. 현대그룹 王회장, 불도저 정주영 82
4. 최초의 자동차 재벌, 신진자동차 김창원 93



4장

자동차 산업의 비상 | 101

1.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리다 102
2. 내실을 다져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113
3. 중화학공업 정책, 자동차 산업의 날개를 달다 126
4.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모델 포니(PONY)의 탄생 134
5. 자동차 산업의 급브레이크, 투자조정조치 142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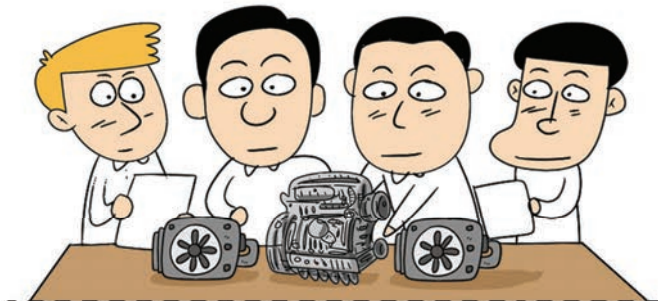
국산 자동차 전성시대 | 151

1. 위기극복의 아이콘, 봉고 152
2. 7전8기의 알파엔진 157
3. 세계로 진출한 우리 자동차 168
4. 마이카(my car) 시대, 자동차 대중화의 시작 179

6장

위기의 파고를 넘어 | 189

1. 자동차 산업에 드리운 먹구름 190
2. IMF 외환위기의 태풍, 한국 자동차의 길 198





* 장일남 박사, 한경제 소장, 김민지 연구원은 가상의 인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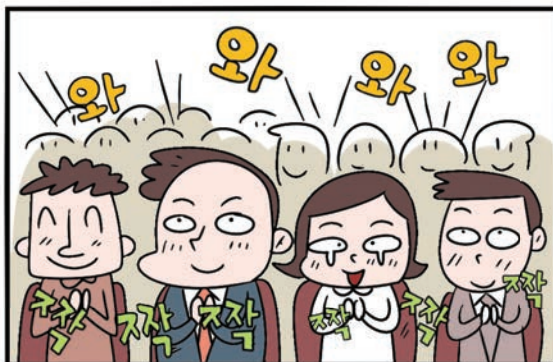


*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경영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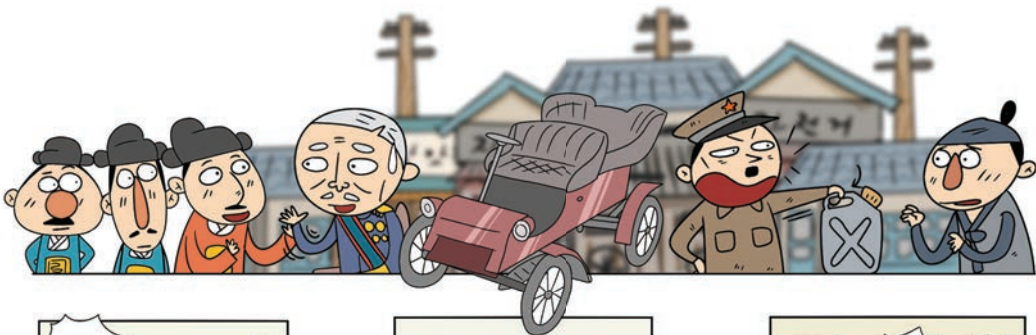
* 테크노크라트: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조직이나 사회에서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제1장 자동차시대를 연다



1. 패하, 자동차(自動車)에
오르소서



2. 상류층의 인기를
독차지한 자동차



3. 일제 치하에서 싹튼
자동차 정비 수리와 재생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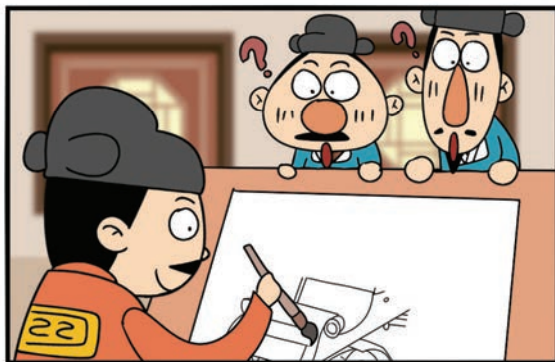
1. 폐하, 자동차(自動車)에 오르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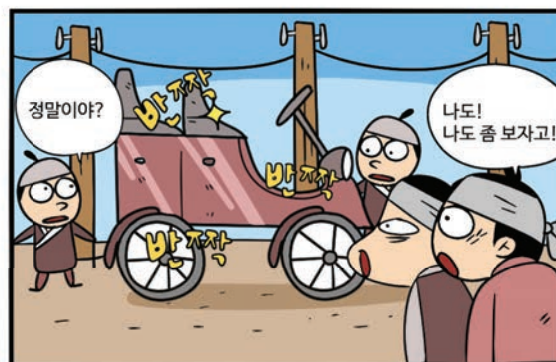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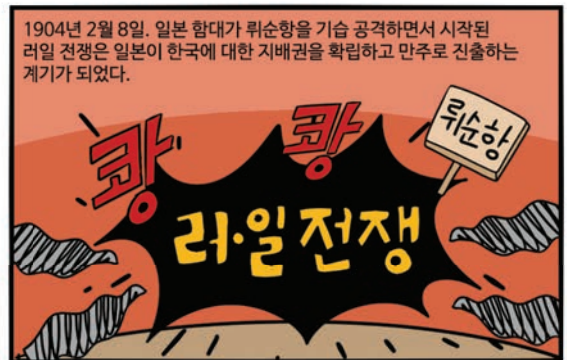
*청경예식 : 고종황제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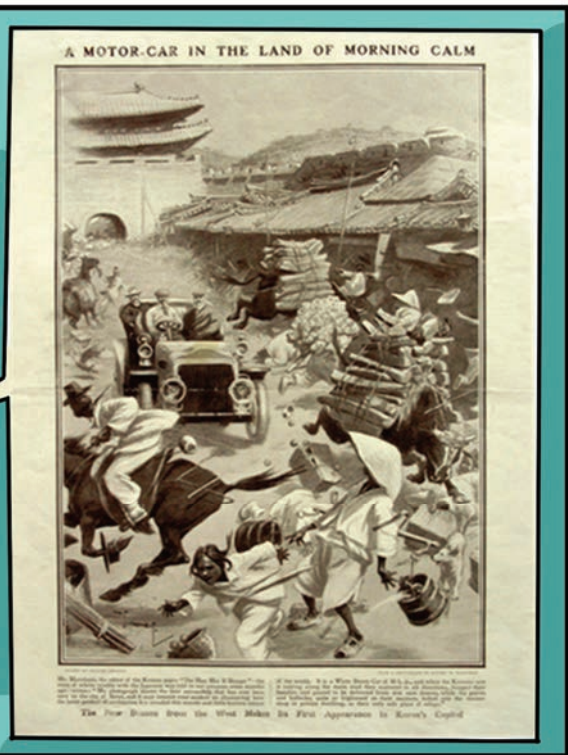








이 그림은 '대한매일신보'에서 일했던 알프레드 맨함의 사진을 짓궂게 그려낸 것으로, 맨함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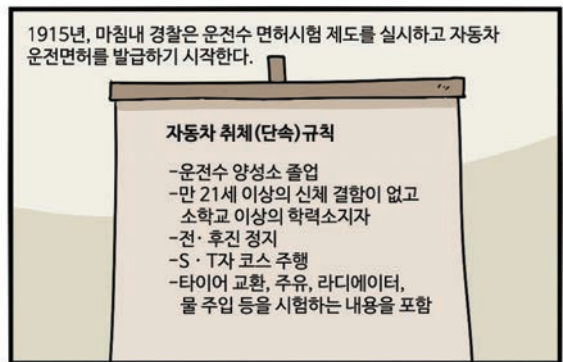


2. 상류층의 인기를 독차지한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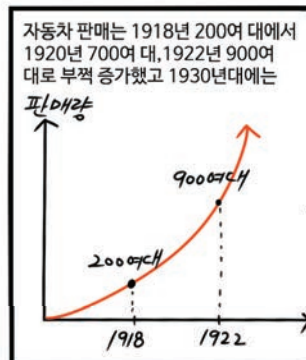


*다꾸시 : 일제 강점기에는 택시를 '다꾸시'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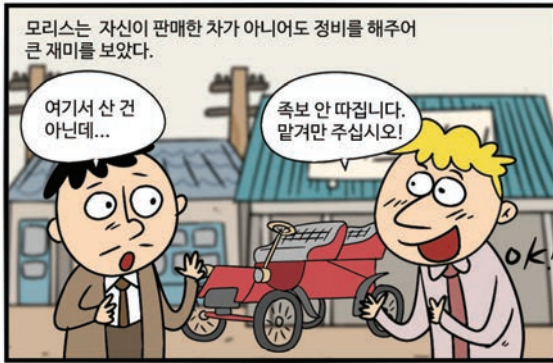






3. 일제 치하에서 싹튼 자동차 정비 수리와 재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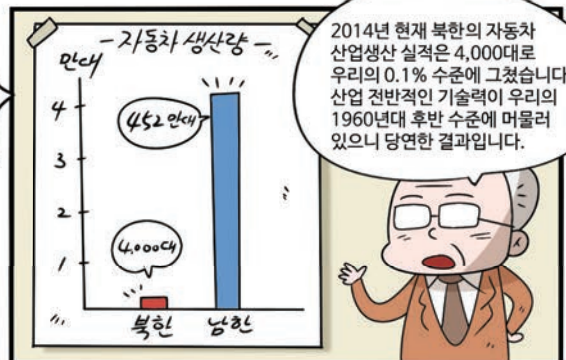












제2장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1. 광복, 자동차의 해방



2. 미군 고문차 재생시대



3. 6·25 폐허의 땅, 그래도 자동차는 단졌다.



4. 최초의 국산 승용차
시반(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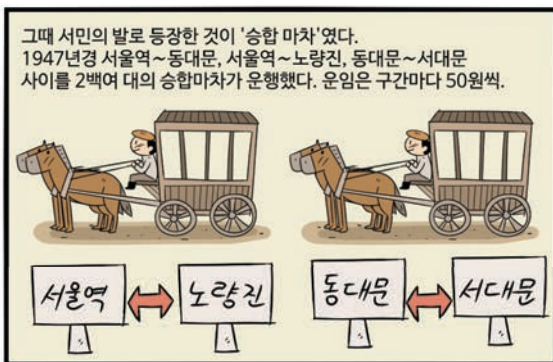
5. 엔진도사 김영삼의 집념

1. 광복, 자동차의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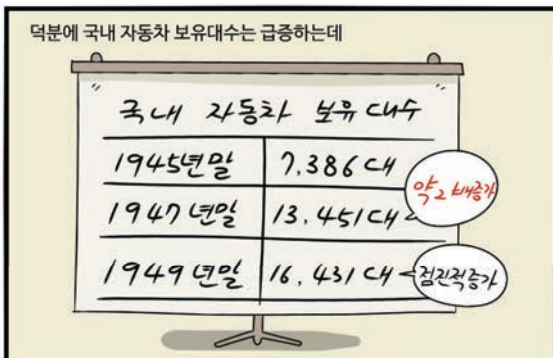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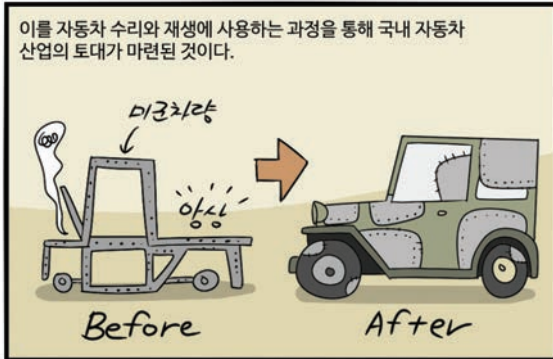


• 적산(敵産) : 자기 나라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敵國)의 재산으로서,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이다. 귀속재산과 같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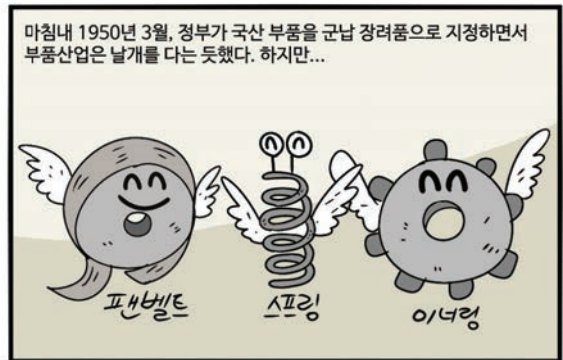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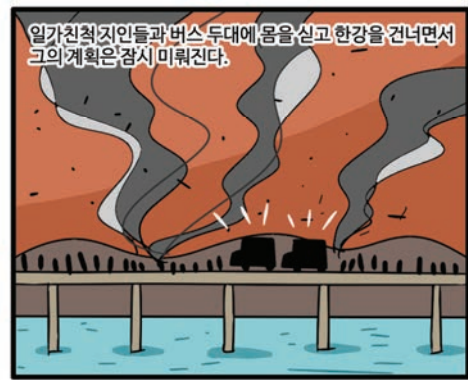
2. 미군 고물차 재생시대



* 불하(拂下)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그러므로 여기서 미군 불하차량이란, 미군의 차량을 개인에게 판 차량을 뜻한다.



3. 6·25 폐허의 땅, 그래도 자동차는 달렸다.



보유한 버스 98대 중 39대, 택시 20대가 인민군에 의해 약탈 또는 파괴된 것이다.

우린 차가 필요해

전북 여객

안돼요! 우리 재산을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순 없소!

그 와중에 회사를 지키려던 최한규 사장이 사망하고 일부 직원은 북으로 끌려가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등 인명 피해도 컸다.

전북 여객

사장님!!

최한규

탕!

탕!

한편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북새통이던 부산에서

국제시장

행경도(함경도)에서 왔음메!

평양(평양)에서 왔시오.

서용기는 피난 온 운수업자들을 규합해 서울버스공사를 조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난민들의 발이 되어줍시다!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웅성

웅성

웅성

차량 60여 대를 모아 무임승차권 500장을 배포해 피난민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

나는 3대 가져왔어요.

난 2대요!

나는 달랑 한 대요.

웅성

웅성

웅성

웅성

그렇게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맥은 피난지인 부산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무임 승차권이 정말 큰 힘이 되네유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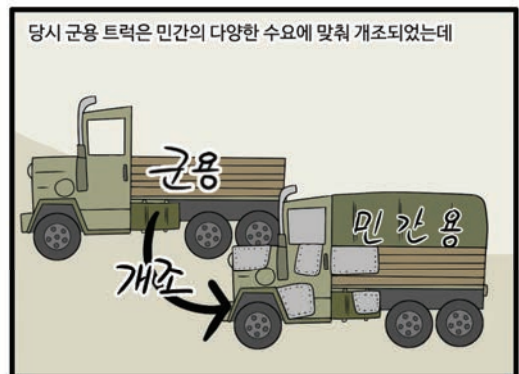
그렇게요 고마운 분들이예요.

무임승차권

이후 서용기는 서울 수복 후 '운수부흥대책협의회'를 조직해 피난민의 귀경과 생필품 수송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1·4후퇴 때 부산 피난길에서는 피난민의 발이 되어 주었다. 그는 전쟁의 비극과 폐허 속에서 민초들의 고단함을 달래준 숨은 영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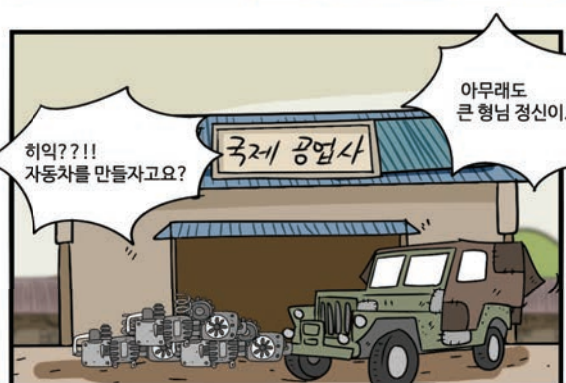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1950년 12월 전후 한국의 부흥과 재건을 돕기 위해 UN에서 설립한 기구

4. 최초의 국산 승용차 시발(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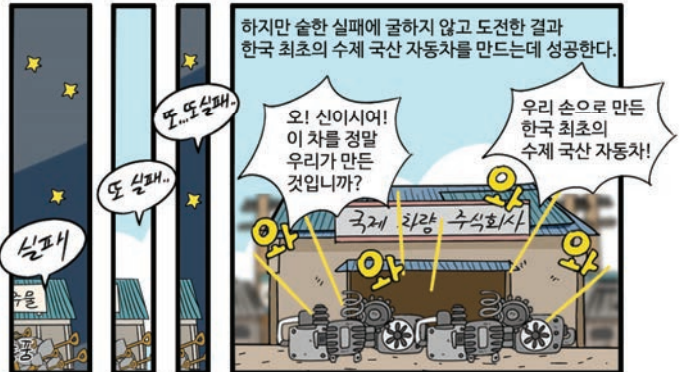








* 쓰리쿼터 : 지프와 트럭의 중간급으로, 적재량이 3/4톤이기에 붙여진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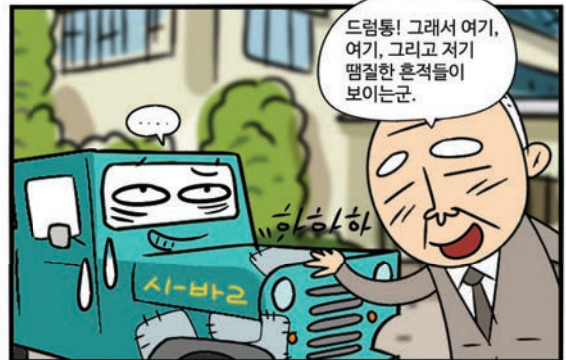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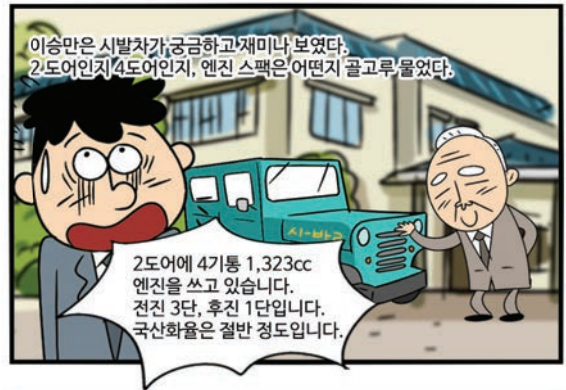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시발차는 대통령상을 수상해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 경무대 - 얼마 뒤,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환 상공부장관을 경무대로 부르는데







자동차 이야기 5. 엔진도사 김영삼의 집념



낮에는 산소통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돈을 벌어야 학원에
다닐 수 있어!



밤에는 학원에서
기계설계와 용접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엔진 수리공장도 다니며 실력을 쌓아가던 그때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김상! 전쟁이 났는데
어디로 가려구요?



하지만 그의 실력은 녹슬 새가 없었는데,
전쟁을 피해 건너간 중국에서는 발동기 공장에 취직해
엔진 기술을 연마했고



함경북도 원산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는 6·25 전쟁 시 전격한
미 해군 선박의 엔진을 수리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잔뼈 굵은 기술자로 성장한 김영삼은



최씨 3형제를 만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 잘 해봅시다!

내레 행경도
싸나ियो!
잘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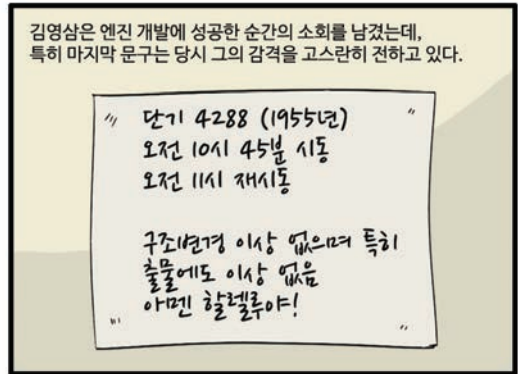


그는 입사 후 1년간 미군 폐차를 재생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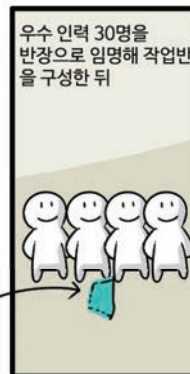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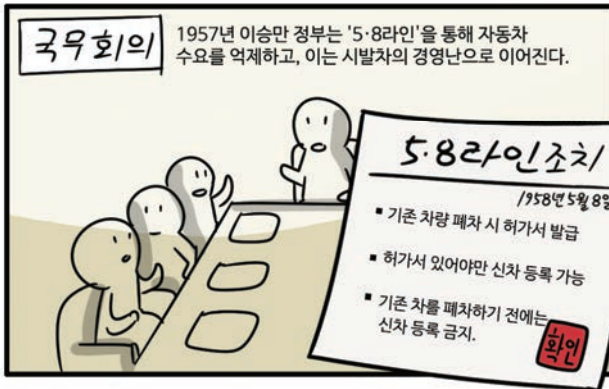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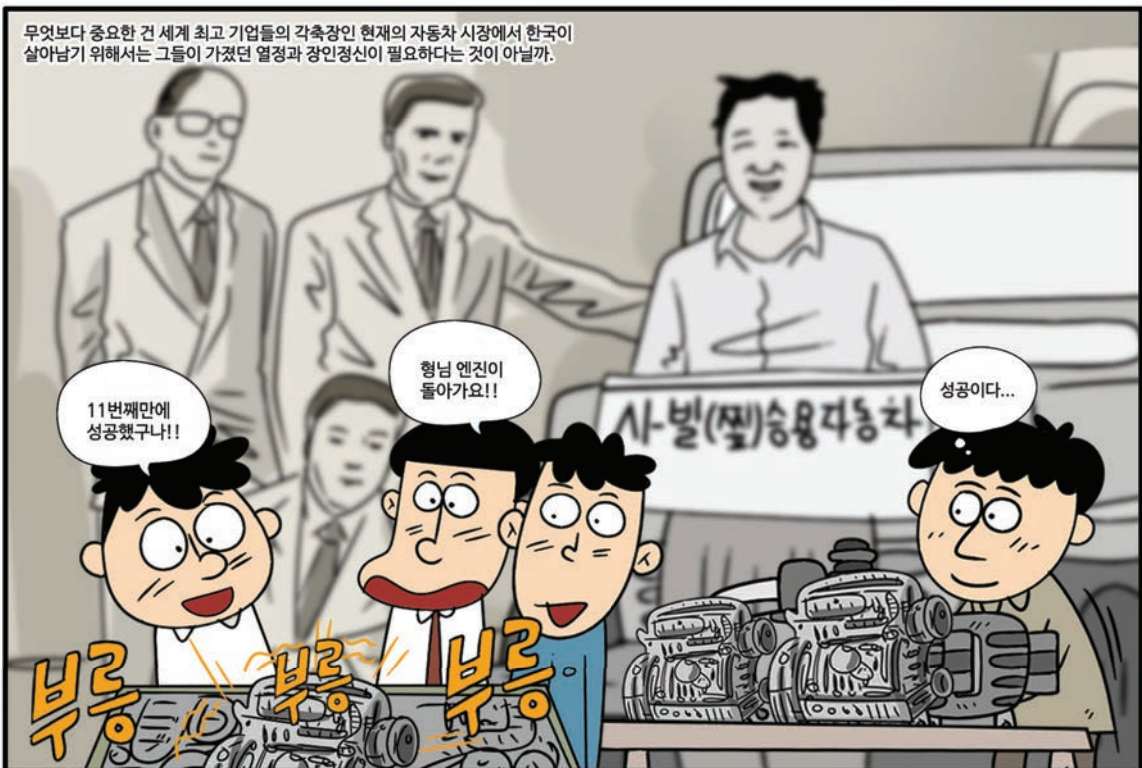












제3장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



1. 드림통 버스의 아버지 하동환



2.자전거에서 자동차까지,
기아산업 김천호



3.현대그룹 회장, 본도저 정주영



4.최초의 자동차 재벌,
신진자동차 김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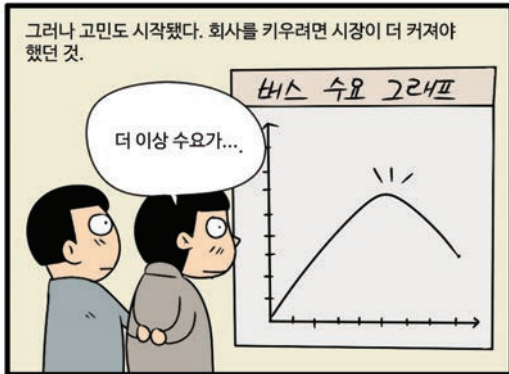
1. 드림통 버스의 아버지 하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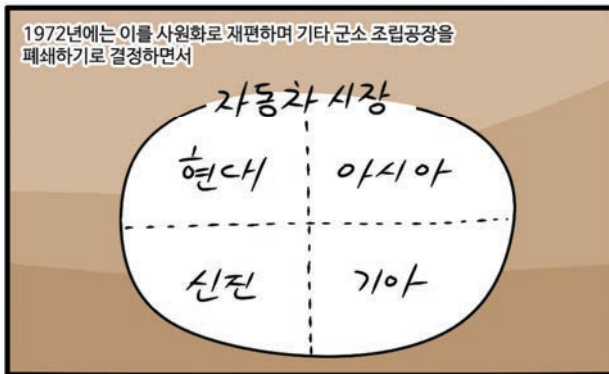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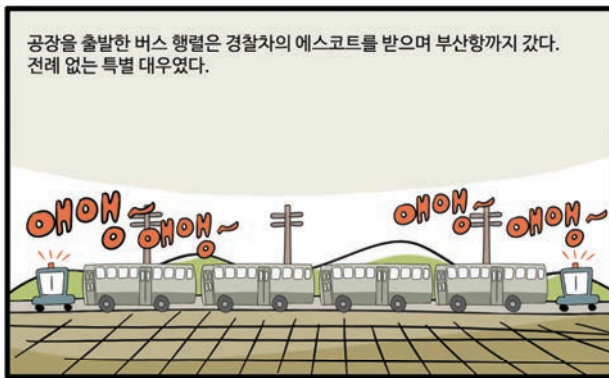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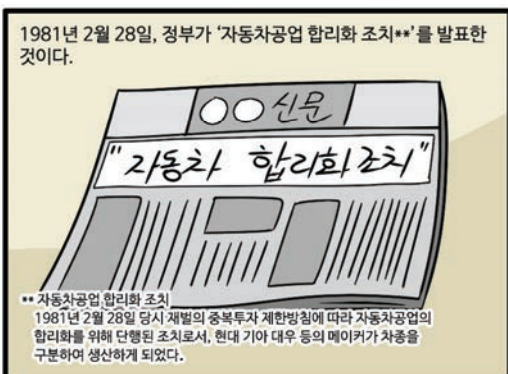
* 월남(越南) : 베트남의 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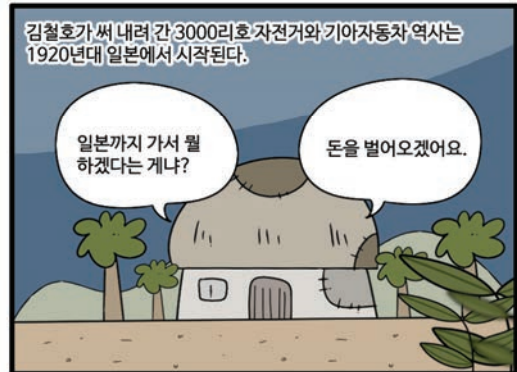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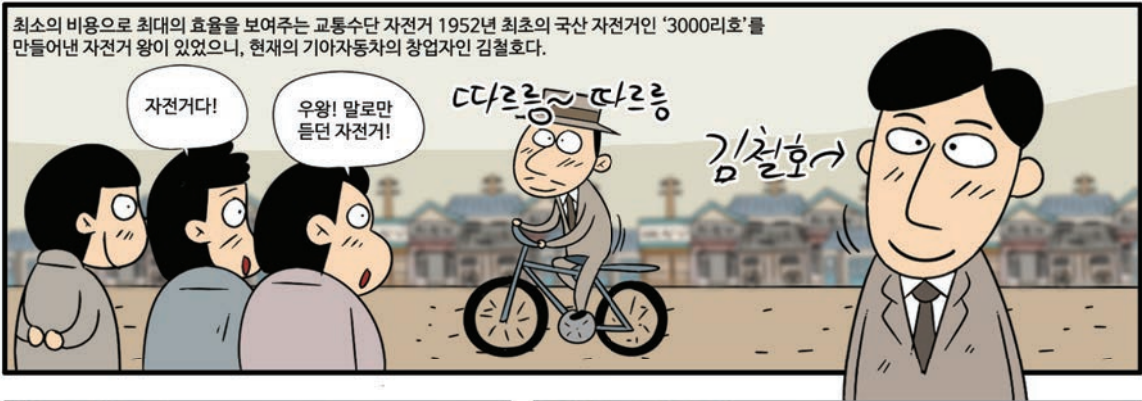
* 특장차 :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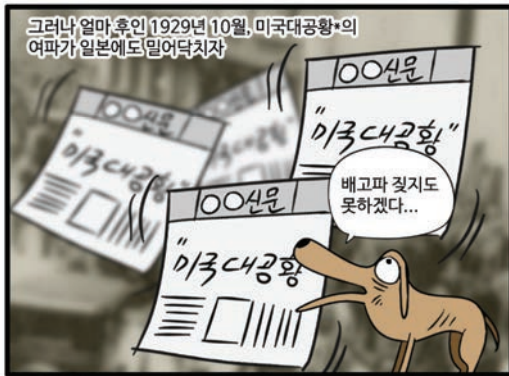
2. 자전거에서 자동차까지, 기아산업 김철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보여주는 교통수단 자전거 1952년 최초의 국산 자전거인 '3000리호'를 만들어낸 자전거 왕이 있었으니, 현재의 기아자동차의 창업자인 김철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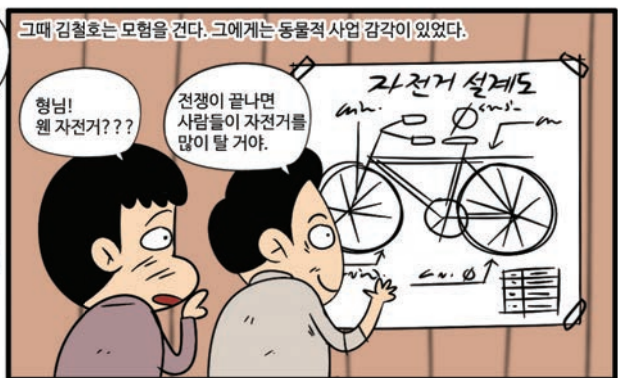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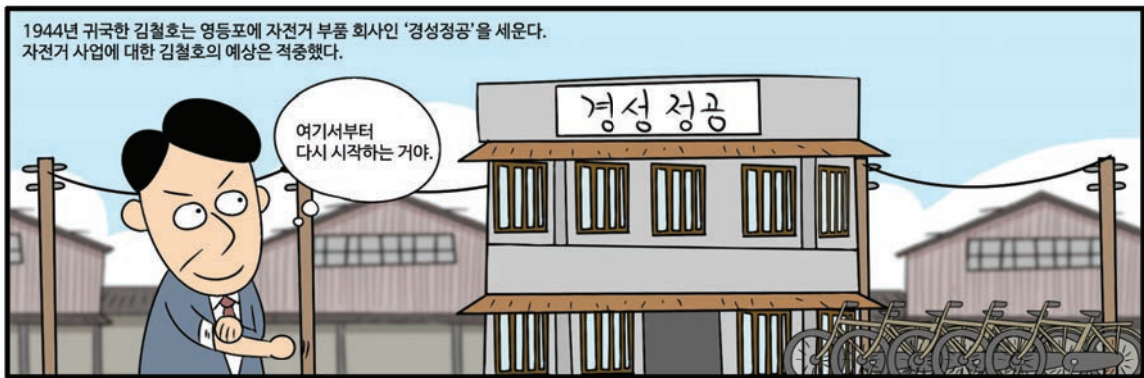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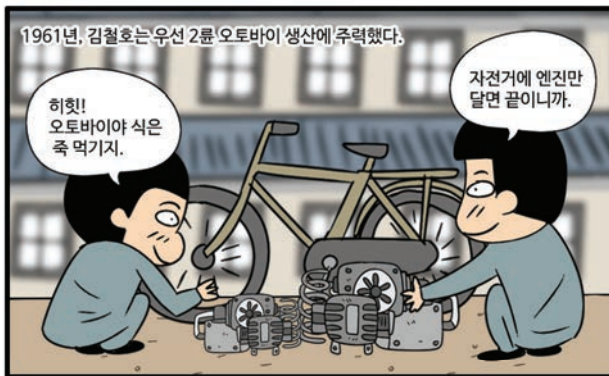


* 미국대공황: 1929년 미국 주가 대폭락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대되며 발생한 경제공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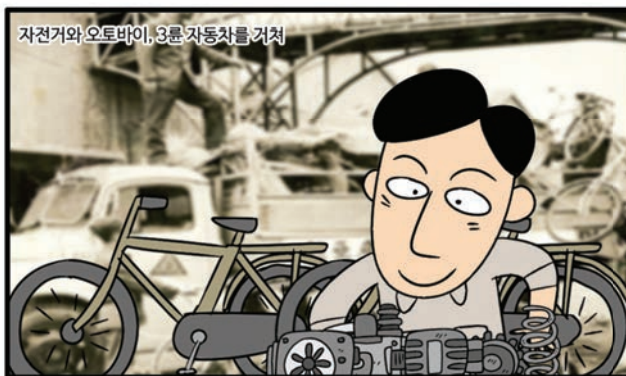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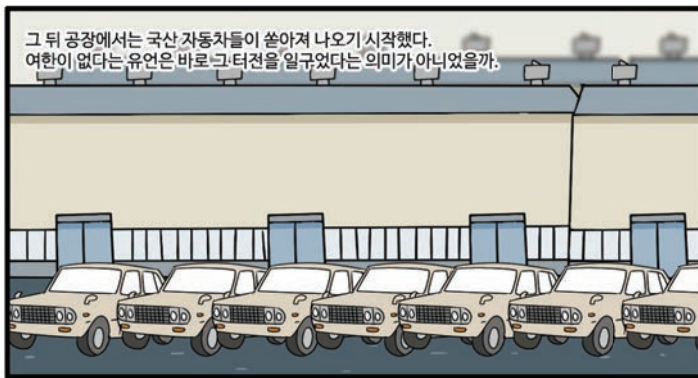






* 동양공업 :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 마쓰다(MAZDA)의 전신





자동차 이야기 3. 현대그룹 포회장, 불도저 정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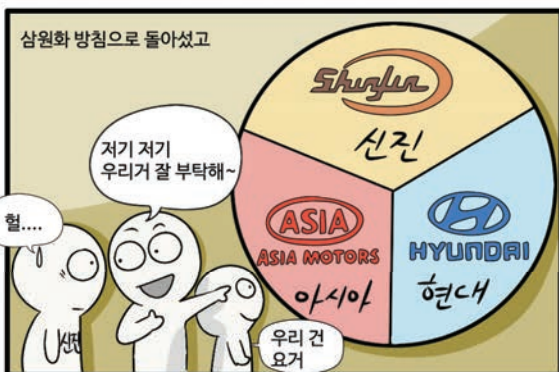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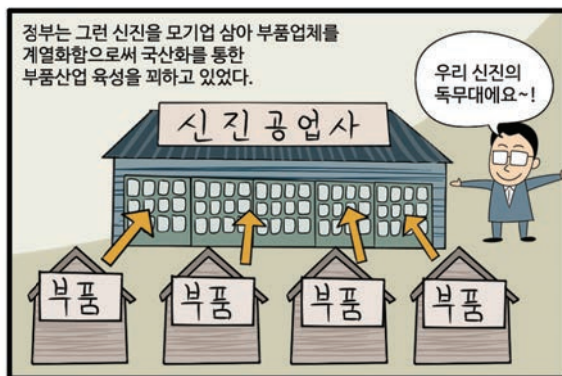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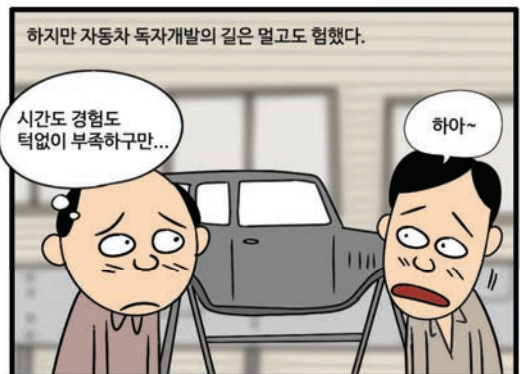














4. 최초의 자동차 재벌, 신진자동차 김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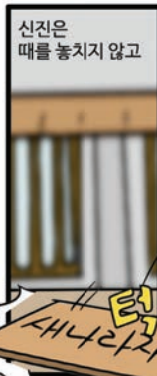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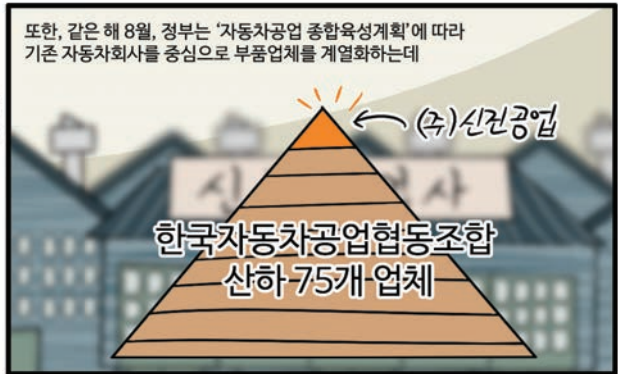


* 적산 기업 : 일제가 패망 뒤 한국에 남긴 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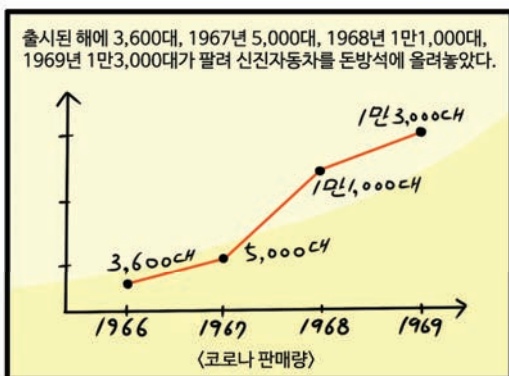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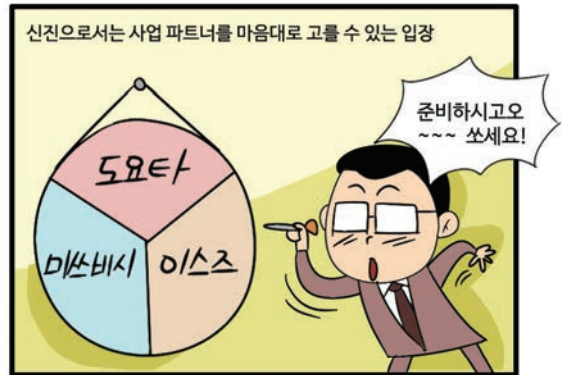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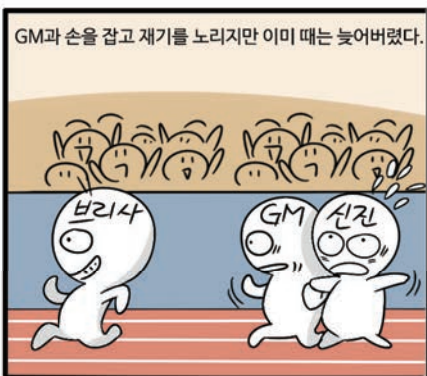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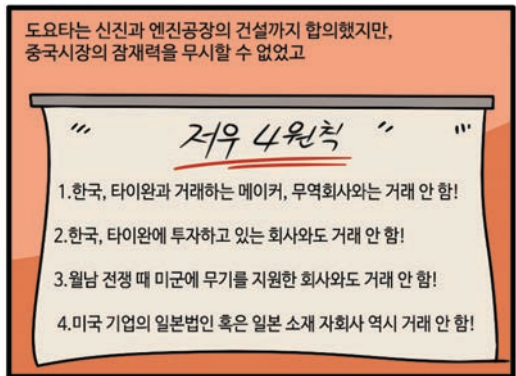






* 새나라자동차사건 : 5·16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국가재건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공업 보호 육성법」을 제정, 공포한다. 그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재일교포 박노정에게 '새나라자동차'의 설립을 허가해주고 각종 특혜를 준다. 그런데 이 특혜가 권력자들이 박노정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대가로 주어진 것임이 드러난다.





제4장 자동차 산업의 비상



1.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린다



2. 내신을 다져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3. 중화학공업 정책,
자동차 산업의 난개를 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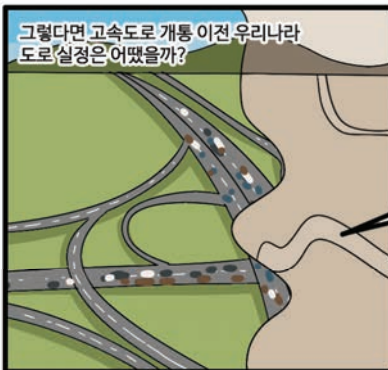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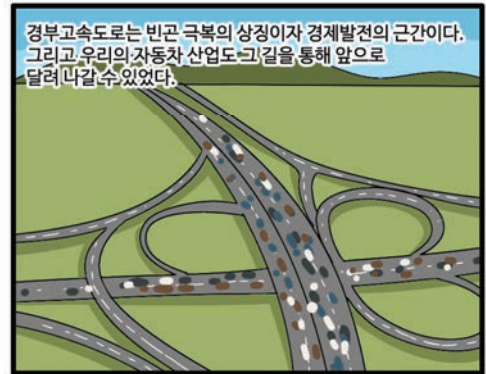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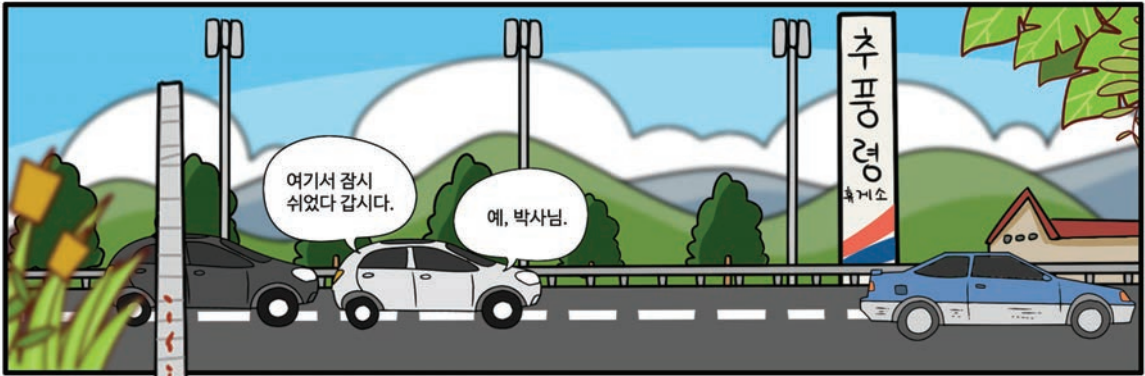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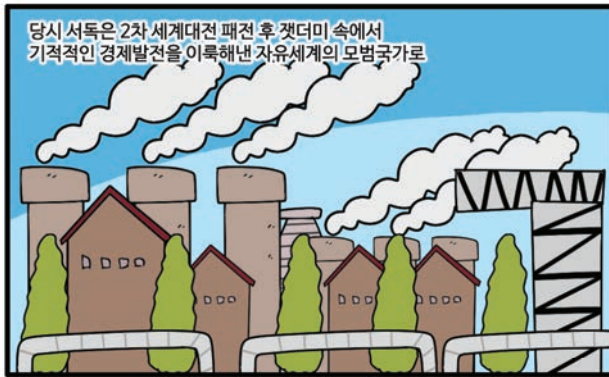
4.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모델 포니(PONY)의 탄생



5. 자동차 산업의
금브레이크, 투자조정조치

1.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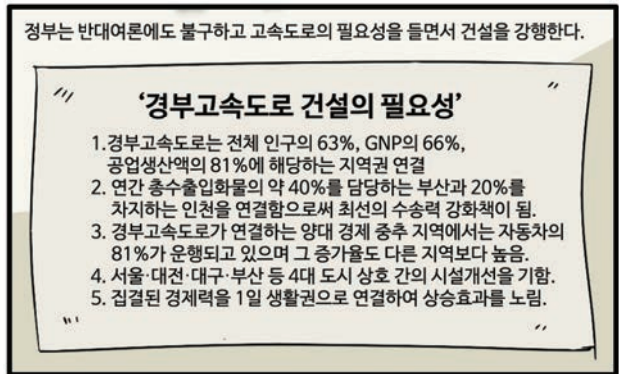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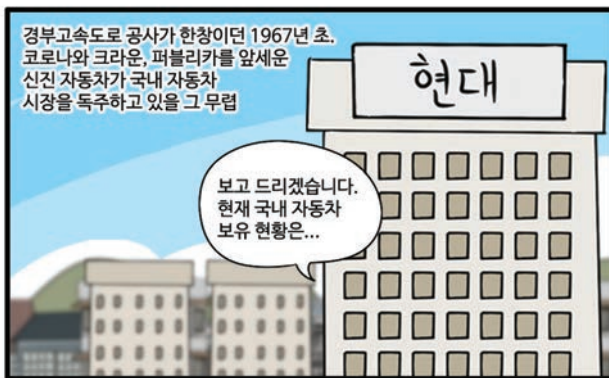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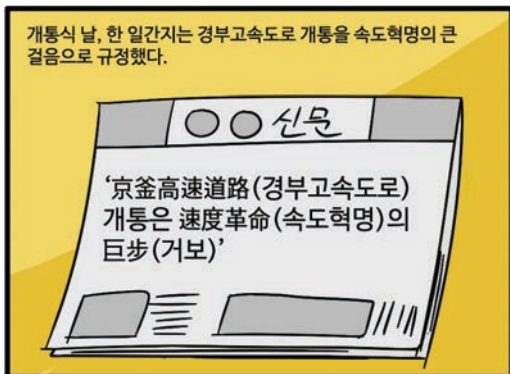
*아우토반 (Autobahn) :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 목적으로 건설한 독일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지만 운전자의 주의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속도 표지가 붙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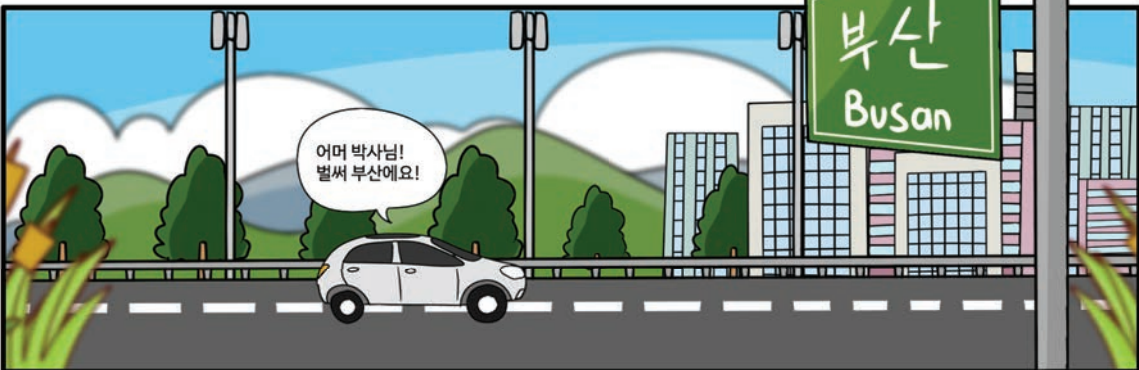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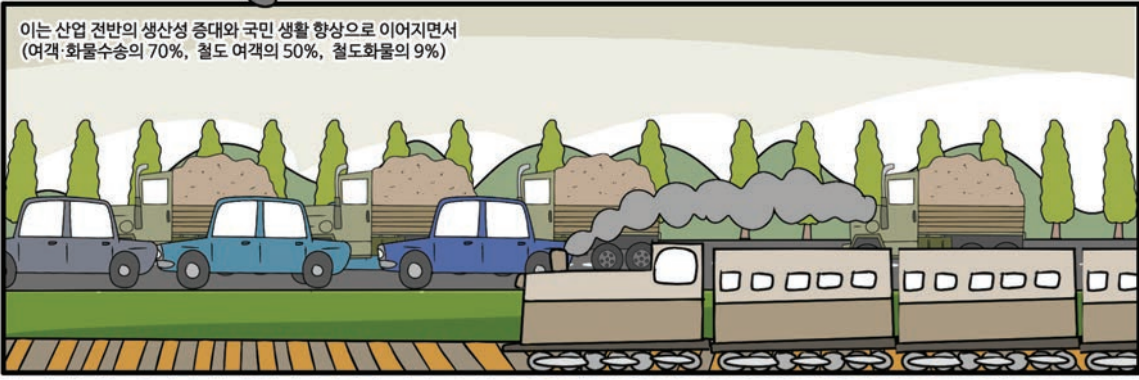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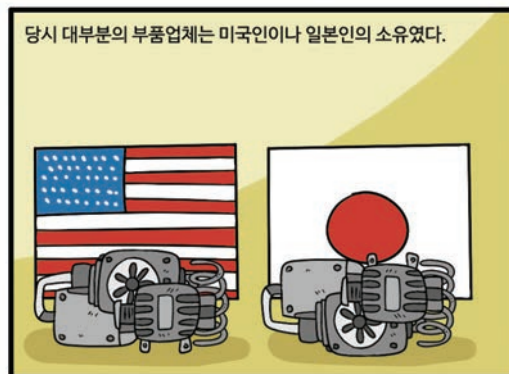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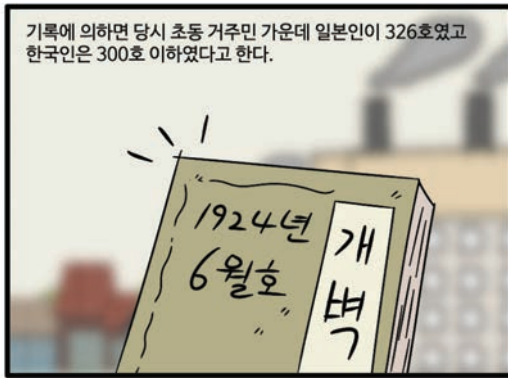




2. 내실을 다져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 스카라극장: 1935년 설립되어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극장으로,
2005년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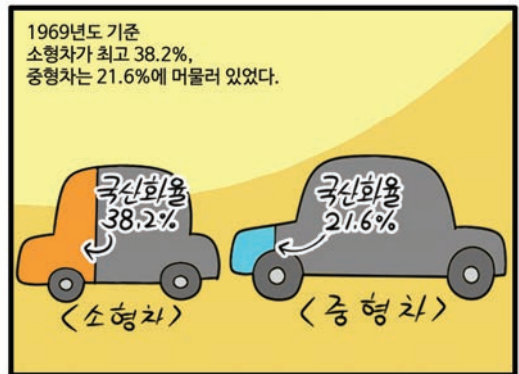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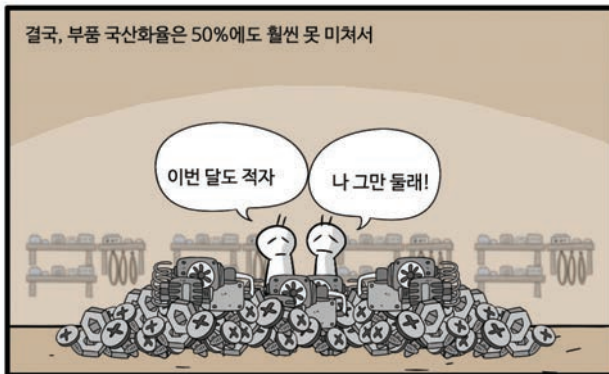


2016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중 한국 업체는 5개 사로, 일본, 미국, 독일의 뒤를 잇고 있다.*

Automotive News**

- 1위 Robert Bosch GmbH(독일)
- 2위 Denso Corp.(일본)
- 3위 Magna International Inc.(캐나다)
- 6위 MOBIS(한국)
- 29위 WIA(한국)
- 45위 MANDO(한국)
- 50위 POWERTECK(한국)
- 65위 DYMOS(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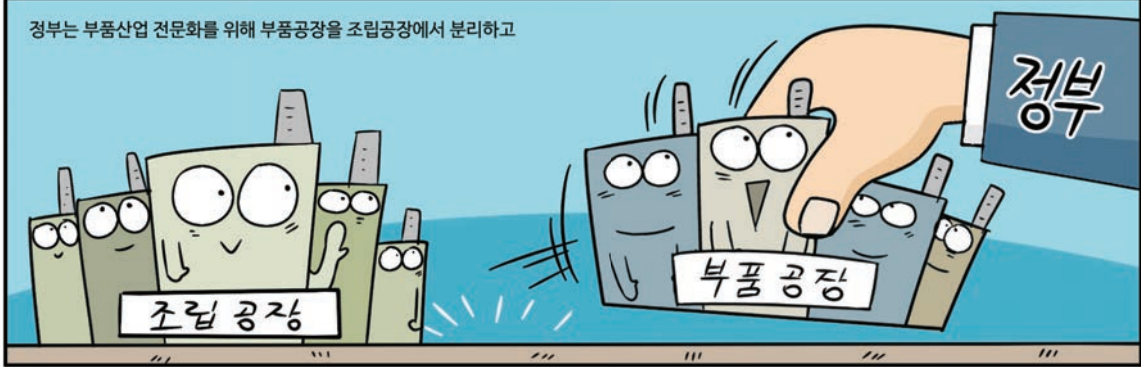
중화학공업화를 선도하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기 자동차 진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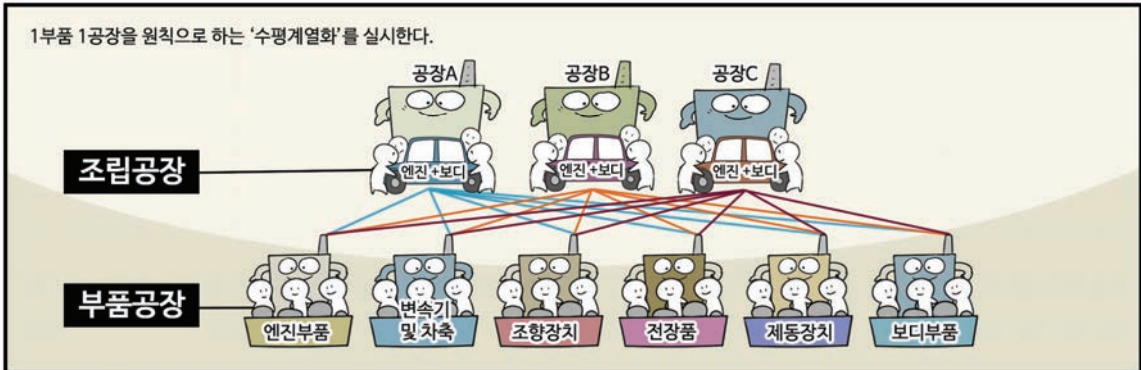
- 1) 1975년까지 승용차 국산화율 95%
- 2) 수출을 위한 고유모델 개발
- 3) 부품산업 육성

먼저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부품산업 전문화를 위해 부품공장을 조립공장에서 분리하고



1부품 1공장을 원칙으로 하는 '수평계열화'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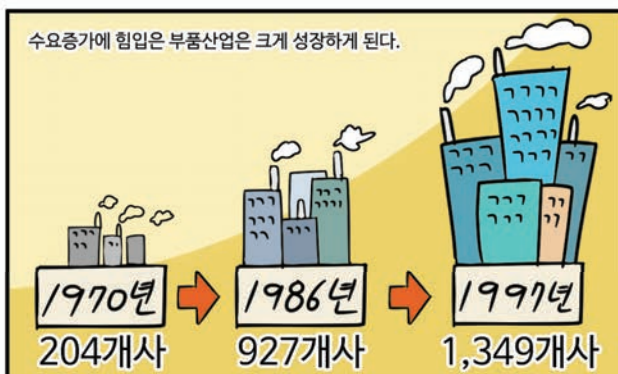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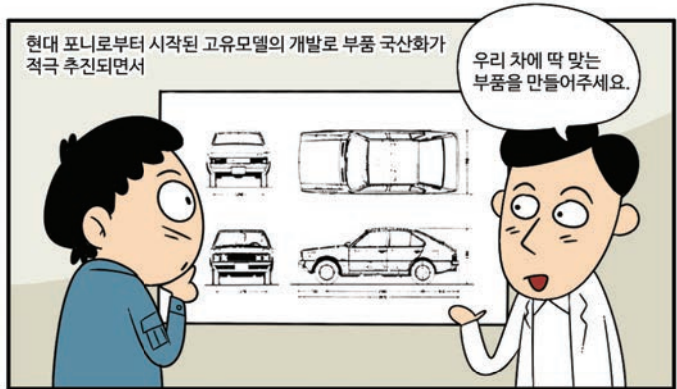


1부품 1공장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부품공장은
창원기계공업단지에 입주시켜 집중 육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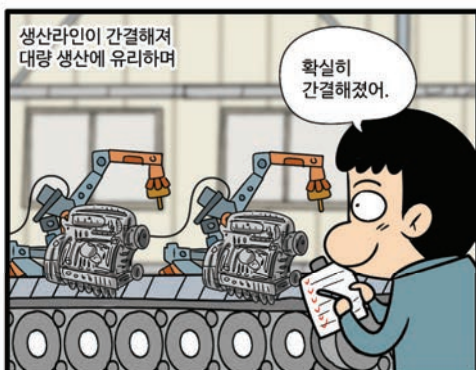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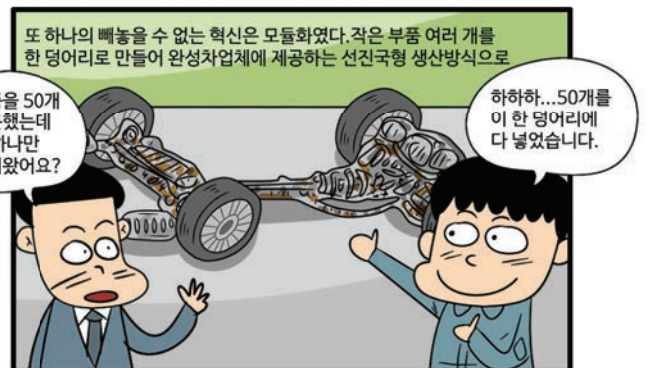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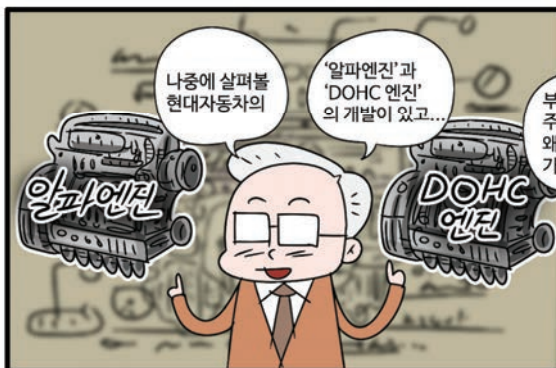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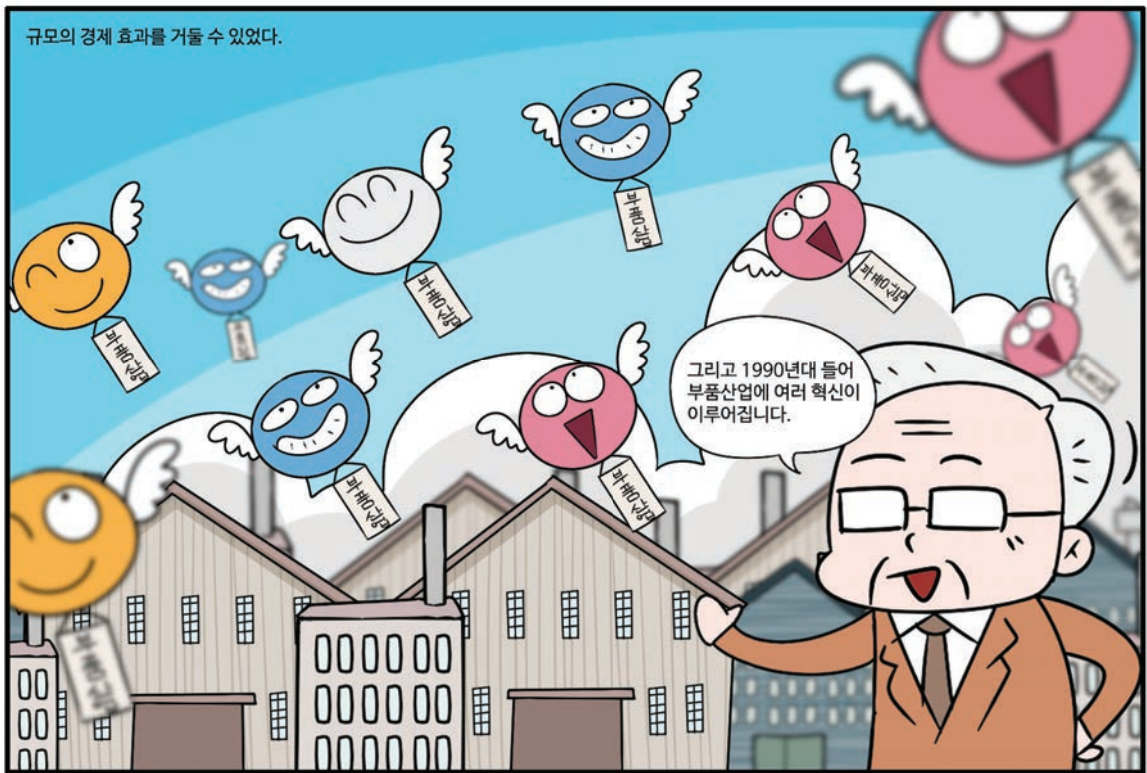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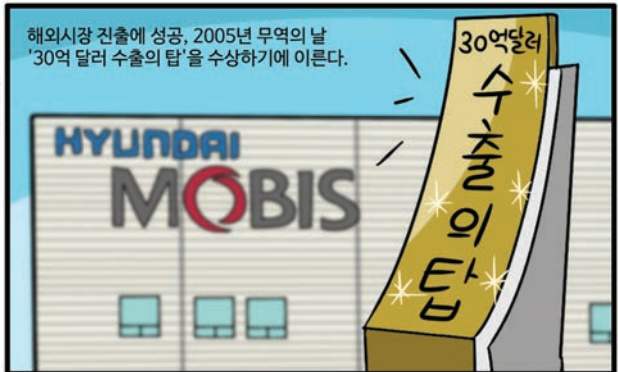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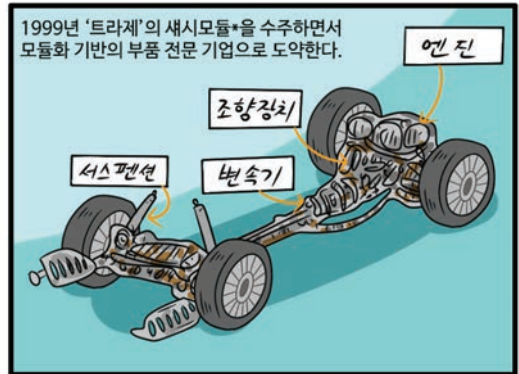
생산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업 간 합병, 해외합작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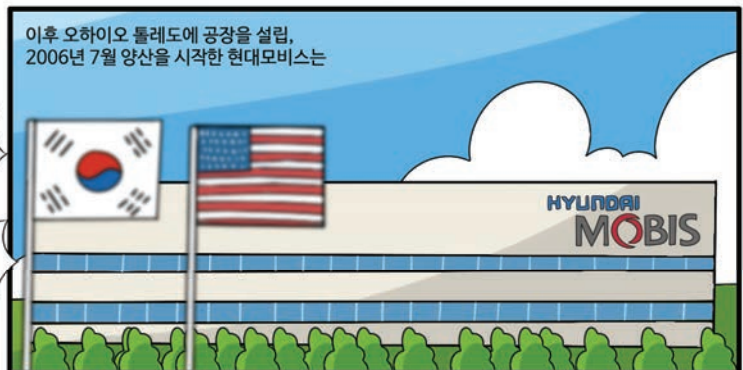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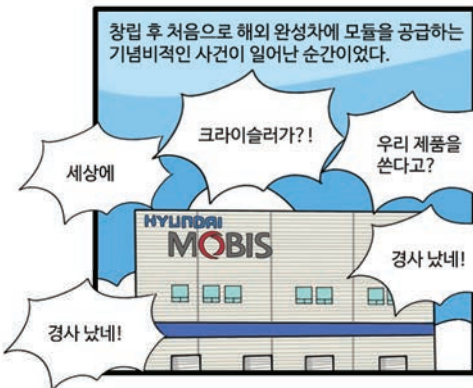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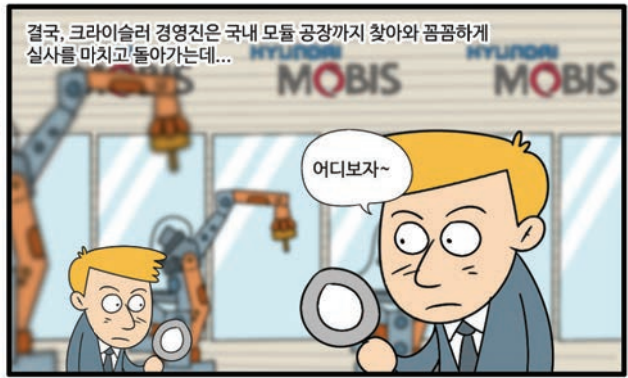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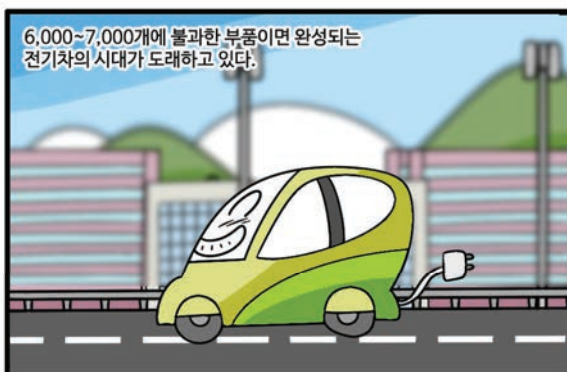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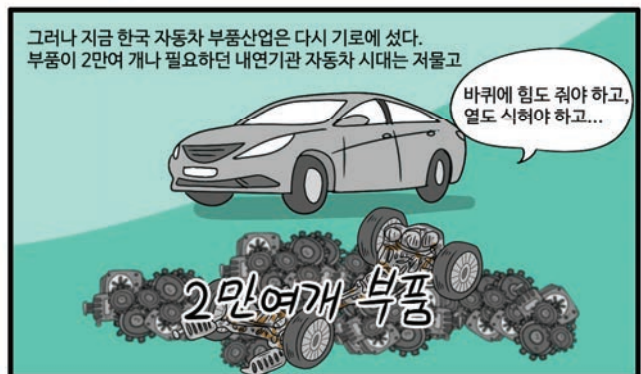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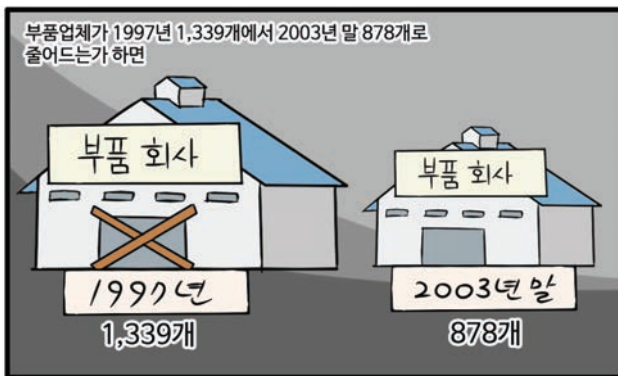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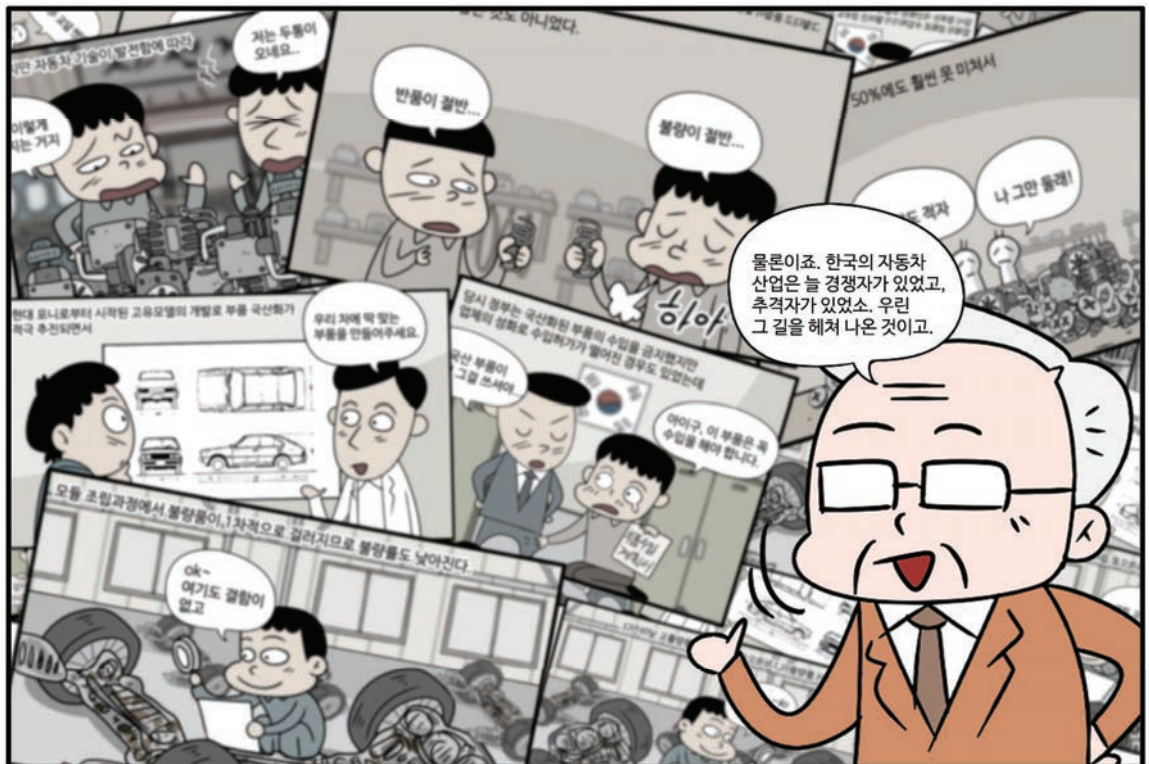




* 새시모듈 : 차량의 뼈대인 새시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등 100여 개의 부품을 장착한 모듈







3. 중화학공업 정책, 자동차 산업의 날개를 단다

1960년대 말, 경제성장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고도성장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경제체질은 여전히 허약했고 수출 품목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이 대다수였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즈음 맹방으로만 알던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그리고 곧이어 주한 미군 가운데 일부가 철수하자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걸 깨달은 박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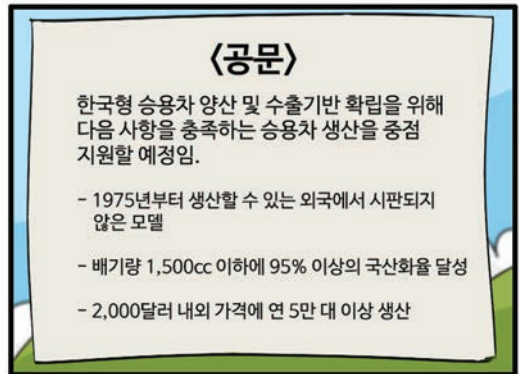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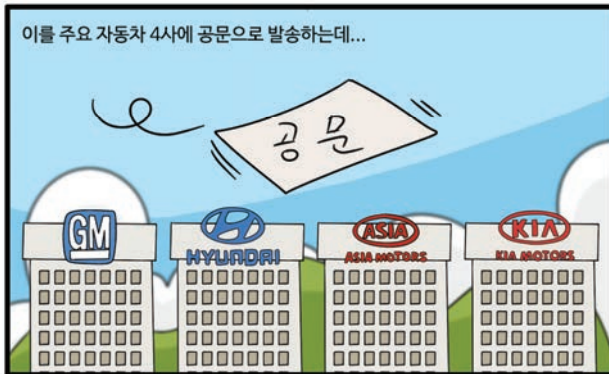
그는 오직 자주국방만이 새로운 안보질서를 해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겼다.

특히 1968년 새해 벽두부터 터진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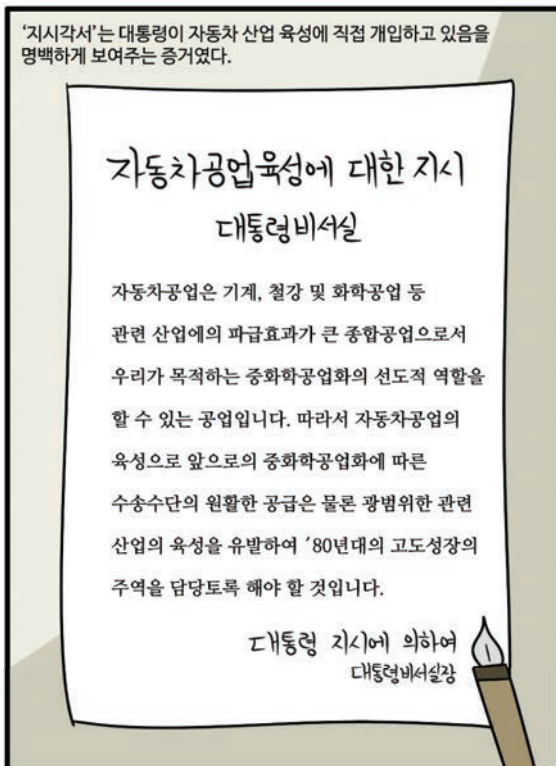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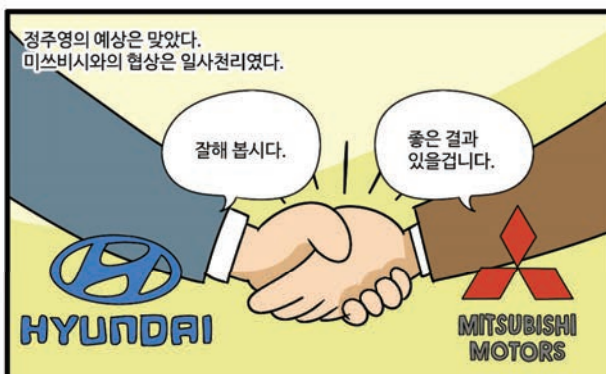
* 닉슨 독트린 : 1969년 7월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대아시아 정책.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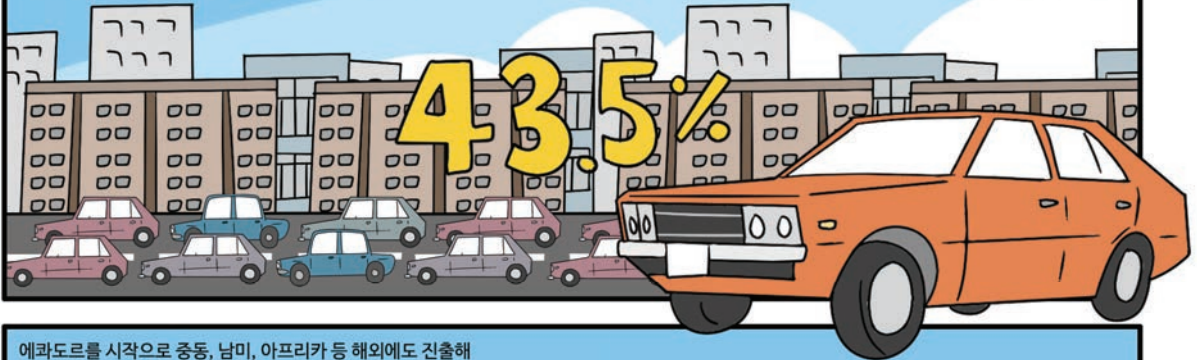






* 프로토타입(prototype) : 대량 생산에 앞서 미리 제작해보는 시제품

시판 첫해 1만726대 판매로 국내 승용차 시장의 43.5%를 점유하는 성적을 거두는 데 이어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에도 진출해 1978년에는 1만2,195대가 수출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진흥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포니 이후 고유모델들이 속속 출시되자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품 수요도 증가 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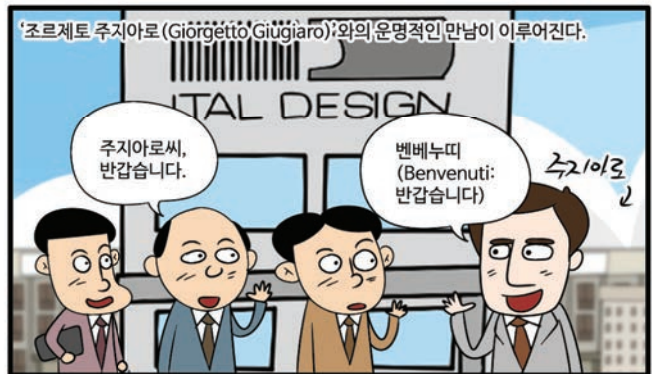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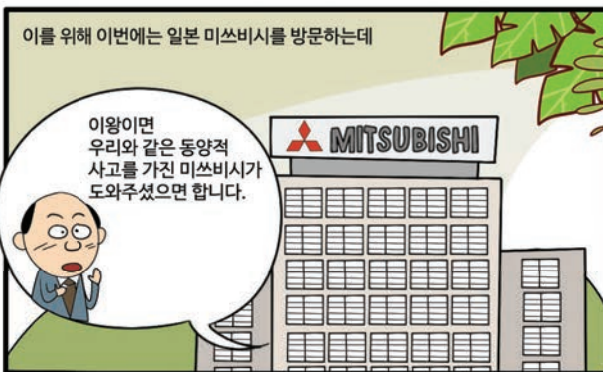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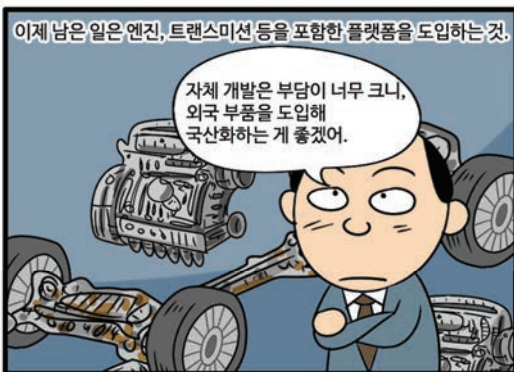
그리고 1981년에는 완성차 수출과 부품 수출이 각각 1억 달러를 돌파해 합계 2억3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역시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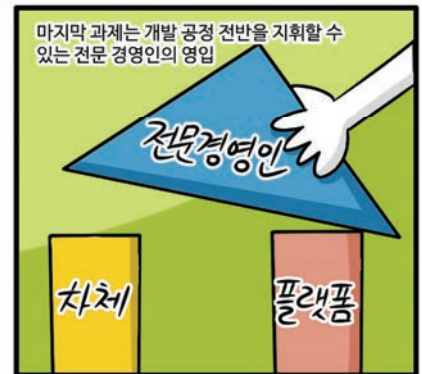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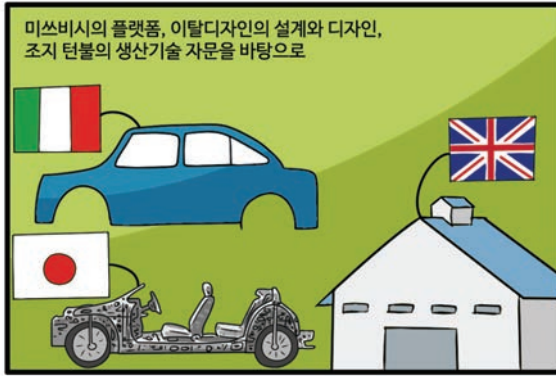
4.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모델 포니(PONY)의 탄생

















5. 자동차 산업의 급브레이크, 투자조정조치



* 사북사태 : 사북탄광에서 어용노조와 낮은 임금 등에 항의해 광부들이 일으킨 파업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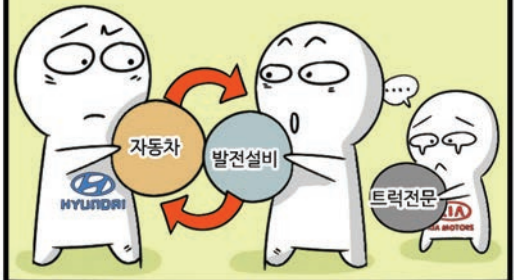
국보위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과오'로 찍어 내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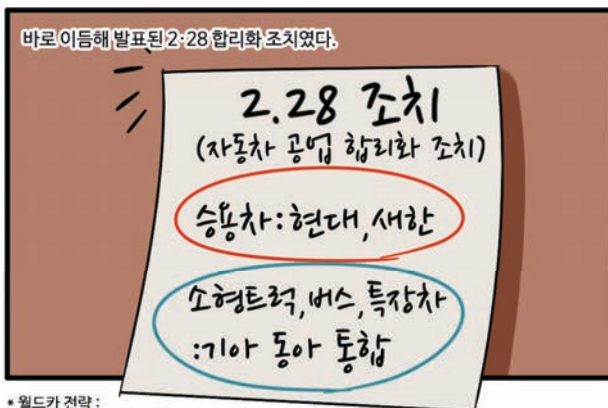
결국, 중화학 분야 투자조정 조치에 들어가는데



그 핵심은 새한자동차(대우)가 자동차를 현대로 넘기고 현대의 발전설비(현대양행)를 받으면서 현대는 승용차를 기아는 트럭을 전문 생산하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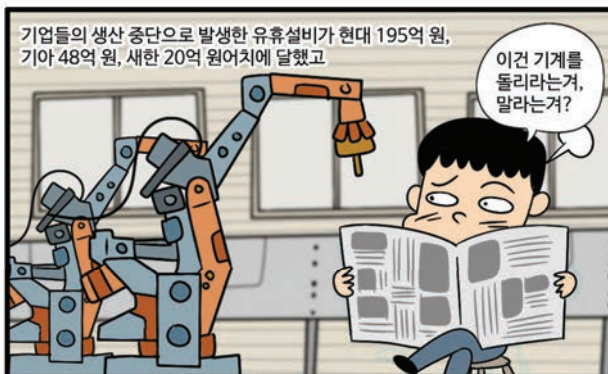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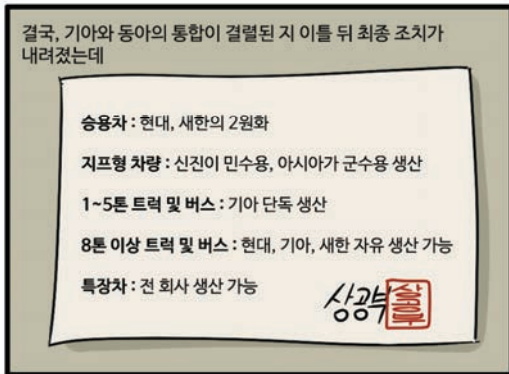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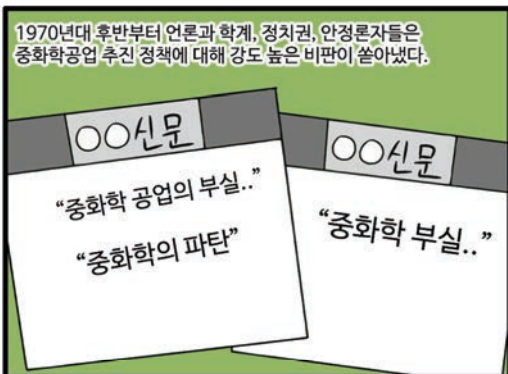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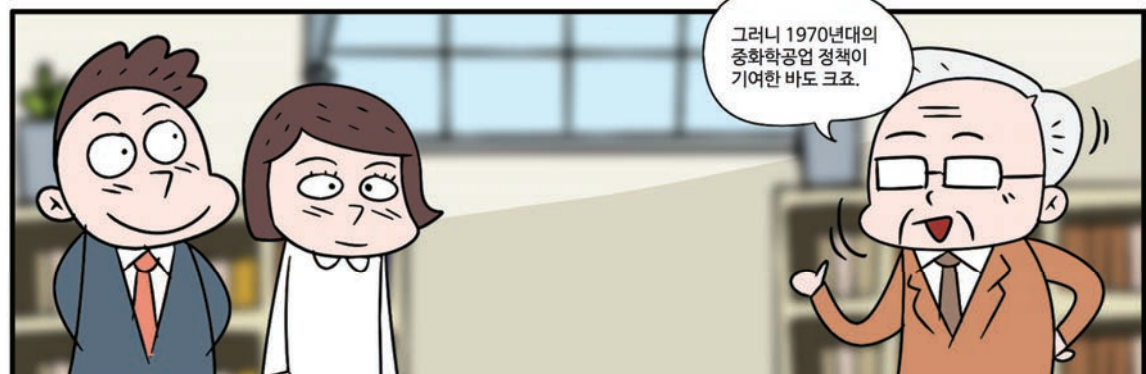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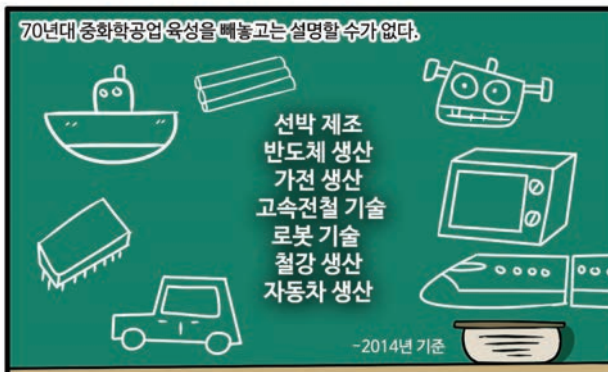
*월드카 전략:
단일 소형차 모델을 개발·생산하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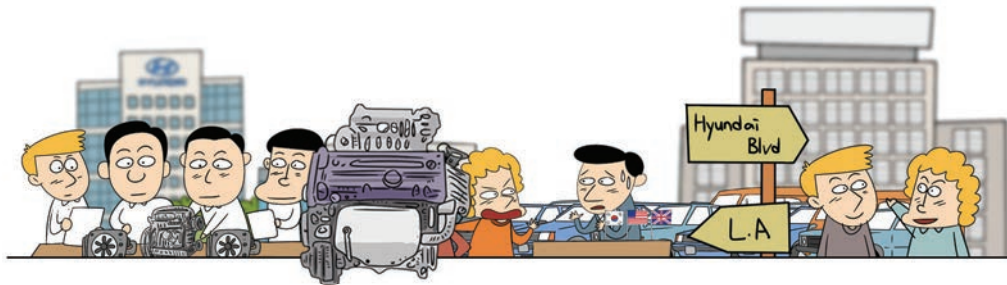








제5장 국산 자동차 전성시대



1. 위기극복의 아이콘, 봉고



2. 7전8기의 안파엔진



3. 세계로 진출한 우리 자동차



4. 마이카(my car) 시대, 자동차 대중화의 시작

1. 위기극복의 아이콘, 봉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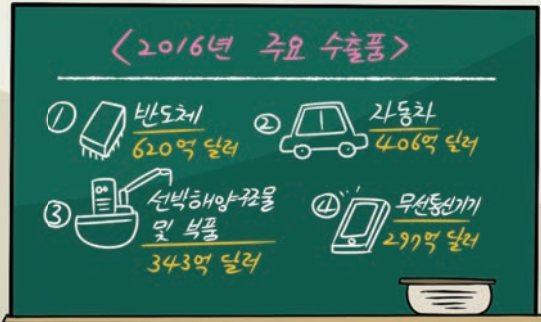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이다.
고용창출도 많다. 제조업 고용의 10%가량이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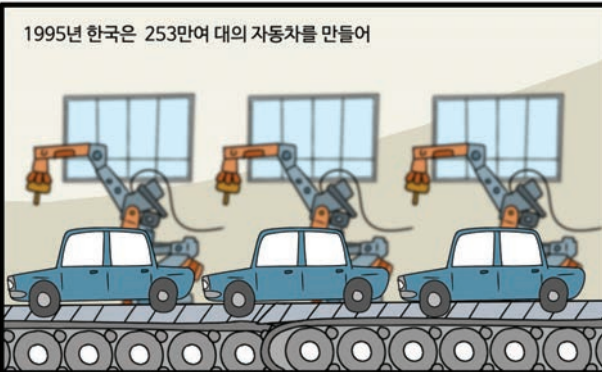
제조업 외에도 AS 시장, 자동차 보험, 폐차, 운전 교육, 면허 관련 등을 포함하면 고용효과는 300만 명에 이른다.



수출에 있어서도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매우 크다.



1995년 한국은 253만여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그중 국내에서 155만대를 쓰고



약 98만 대 가량을 해외에 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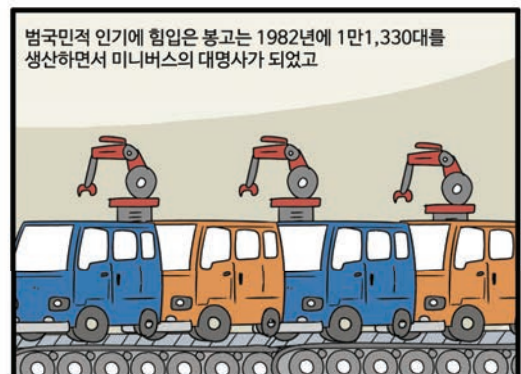


그리고 그 결과, 세계 자동차 생산규모 5위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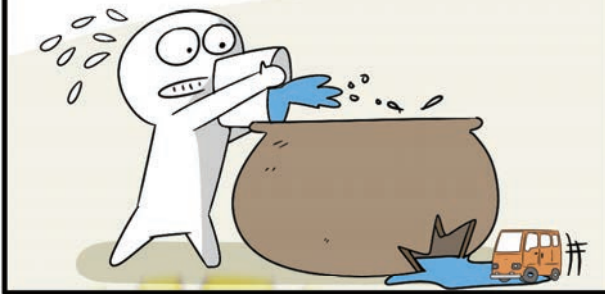








기아는 이를 밑거름 삼아 동아자동차와의 합병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3년, 적자를 모두 변제하고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이 봉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봉고 신화'가 탄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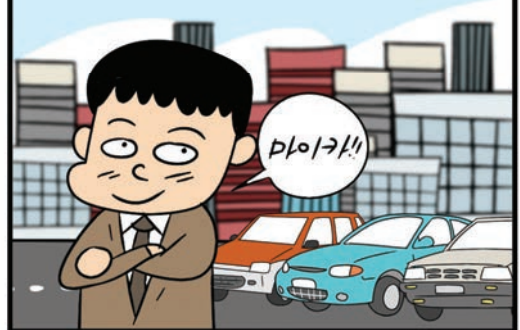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이 합리화 조치를 극복한 이후 199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모터리제이션'이 시작되는데



이에 힘입어 국산 고유모델과 인기 차종이 줄줄이 탄생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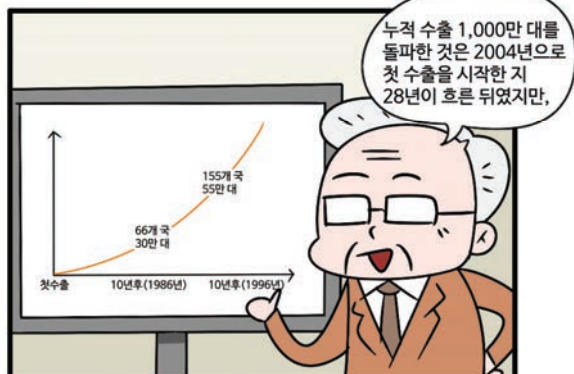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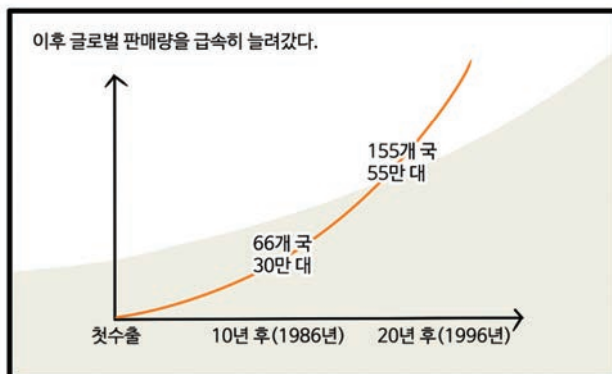
국내 자동차 소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짧은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그저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

*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 :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생활필수품이 되는 현상.

2. 7전8기의 알파엔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선진국에서 소형차를 선호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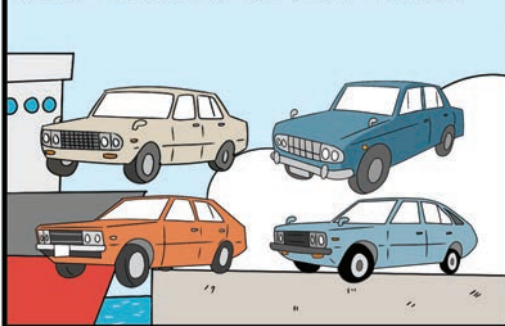
정부의 역할도 한몫했다.



덕분에 기아가 승용차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고



신규업체의 참여로 생산 차종이 증가해 수출의 폭도 넓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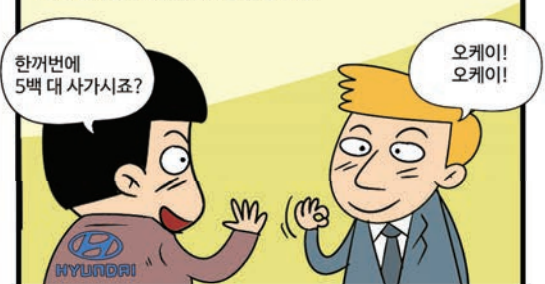
그러나 수출이 순항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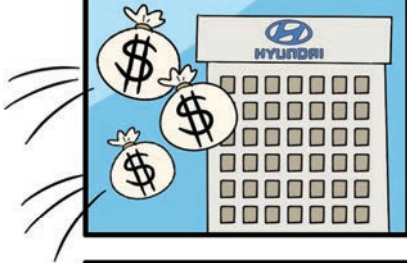
포니는 1976년 출시 직후 약 43.5%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보였고



해외 수출 사정도 괜찮았다. 1976년에 1,019대, 3년 후인 1979년에는 1만9,355대를 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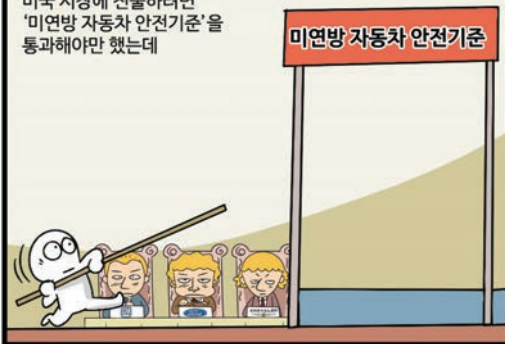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제는 '자동차 왕국'으로 불리던 미국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검사결과 37항목에서 13개가 불합격!



미쓰비시의 구형 엔진 기술을 차용한 포니가 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었다.



핵심 부품인 엔진을 남의 손에 맡긴 것이
화근이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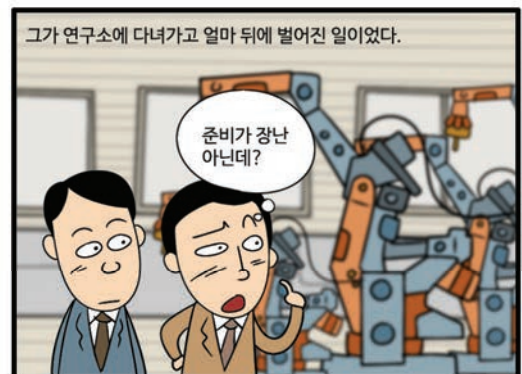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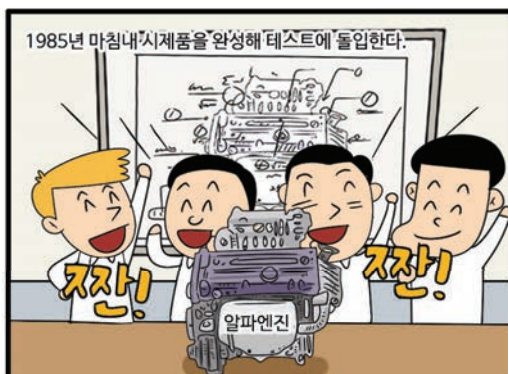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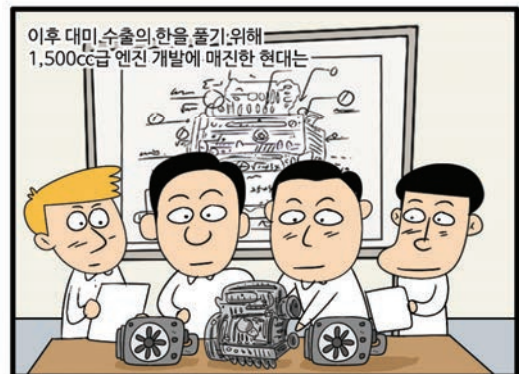
우리가 차를 만든 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의 엔진 가져다 쓸 거야?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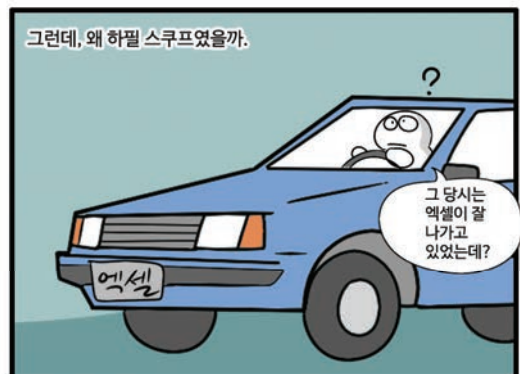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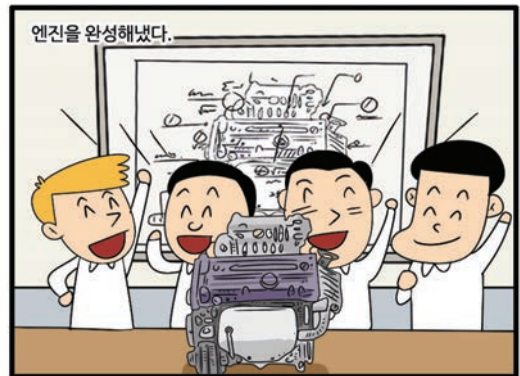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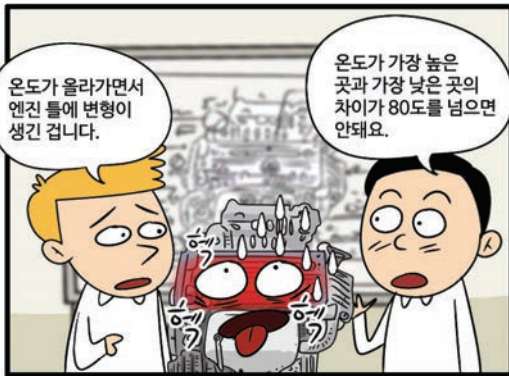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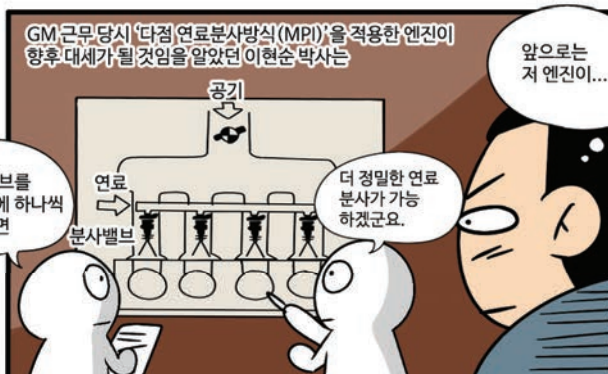
게다가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은 공공 감춰두는
추세니 우리가 직접
엔진을 맹글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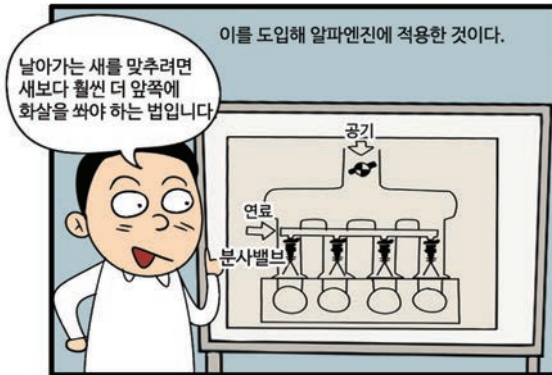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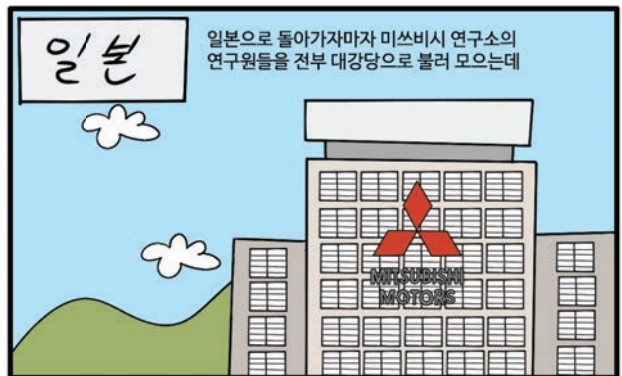






* 제로백 :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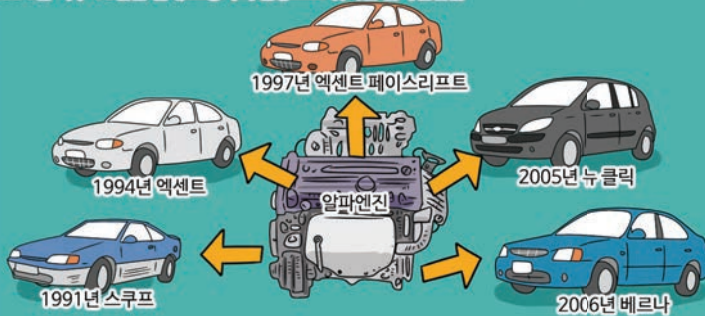
미쓰비시로부터 엔진기술을 배운 현대차가
미쓰비시에 기술을 전수하게 된 것이다.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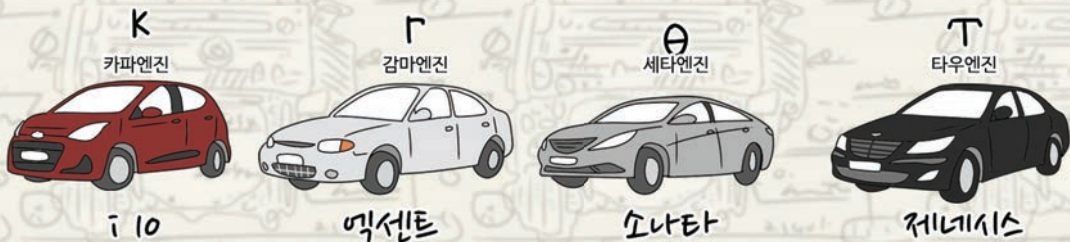
1991년 이후 16년간 현대 소형차의 심장으로서 뛰어온 알파엔진은



현대차, 아닌 국내 소형차의 역사를
만든 셈이었다.



이후로도 현대는 독자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차급에서 대형차급에 이르는 풀 라인업을 구축해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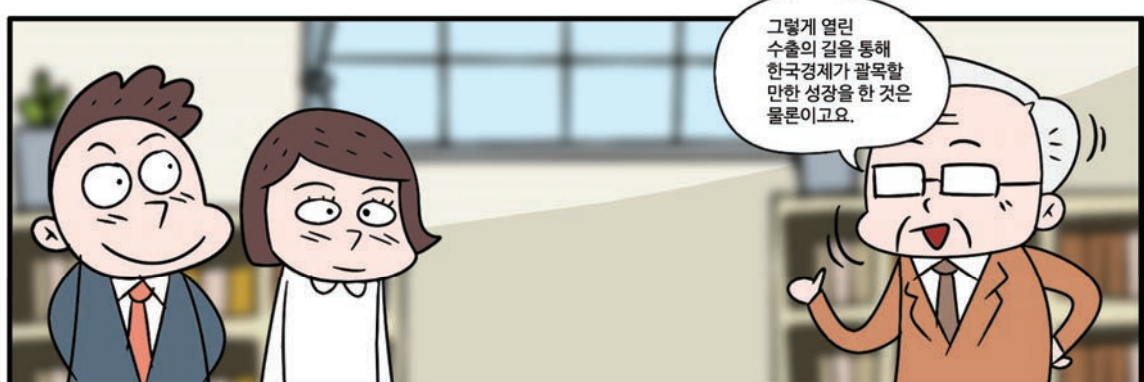
기술력에서도 인정을 받아 미국 워즈오토(WardsAuto)*가 발표하는
세계 10대 엔진에 총 7차례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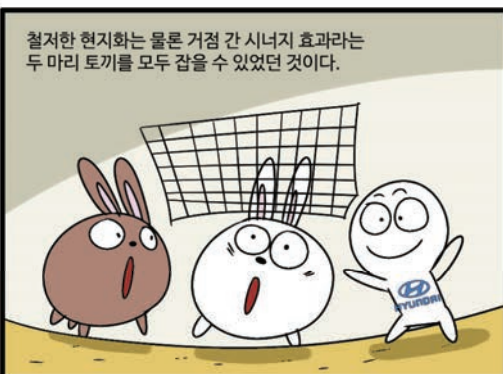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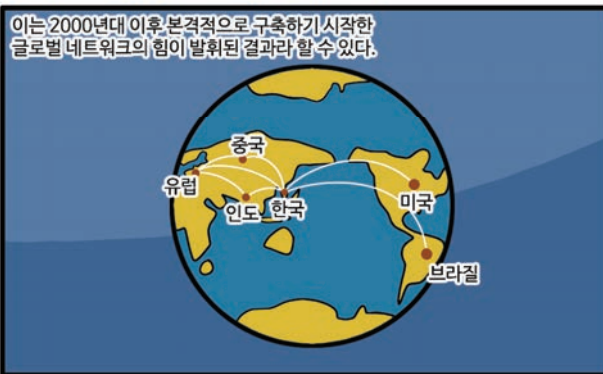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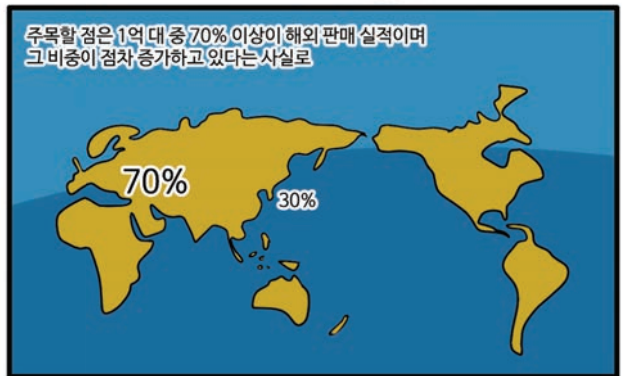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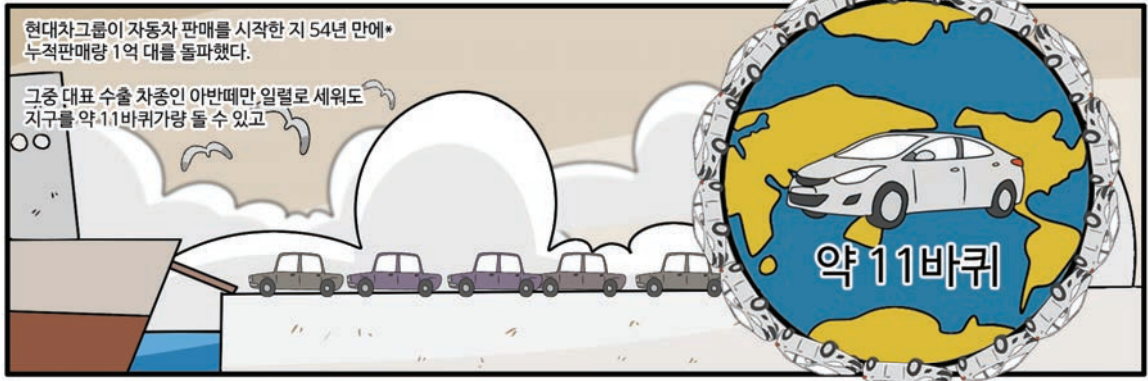
타 자동차 제조사의
엔진 독자개발도
1990년대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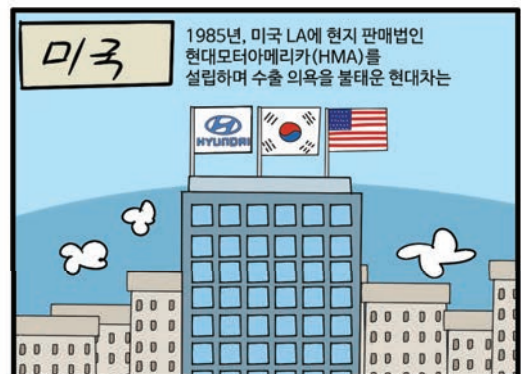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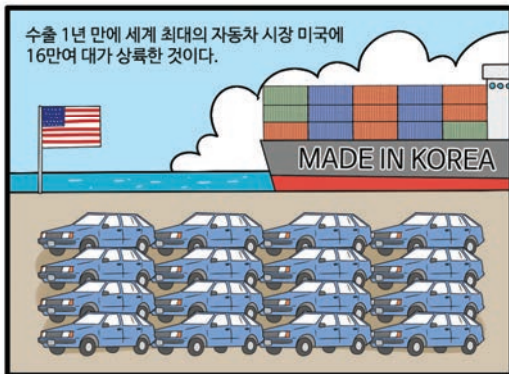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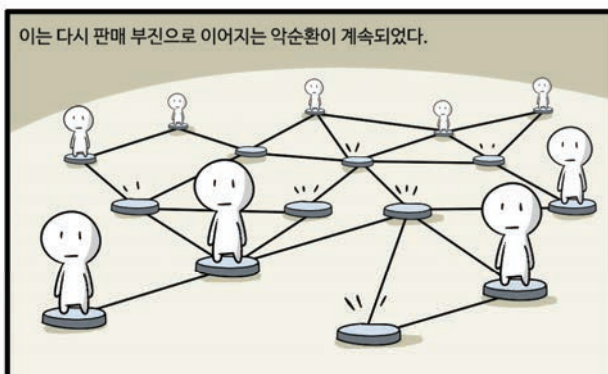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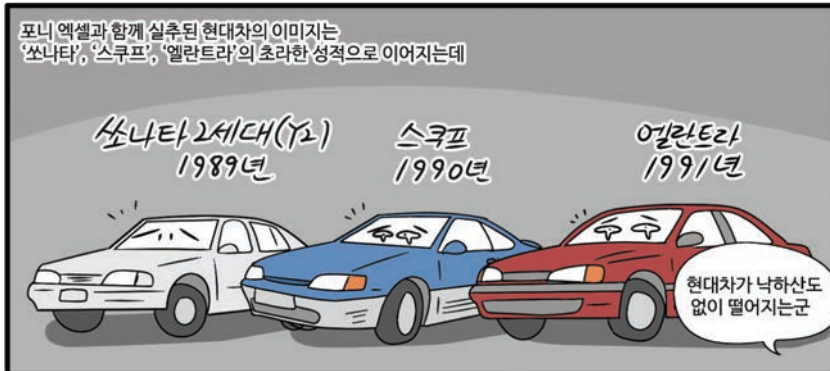
3. 세계로 진출한 우리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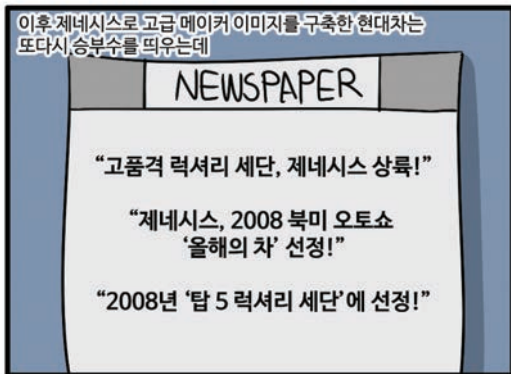
* 전륜구동 : 엔진의 동력이 앞바퀴로 전달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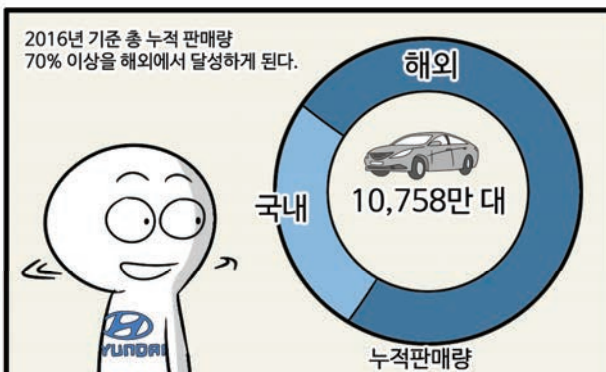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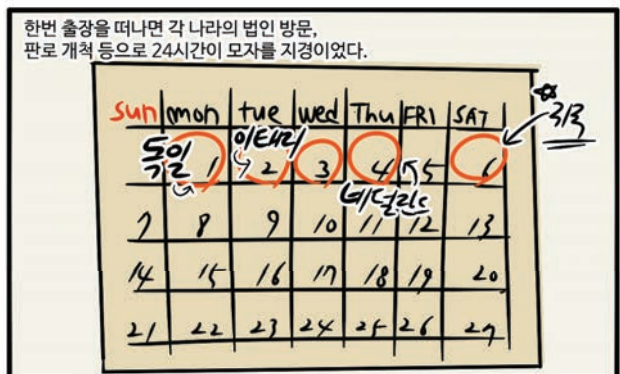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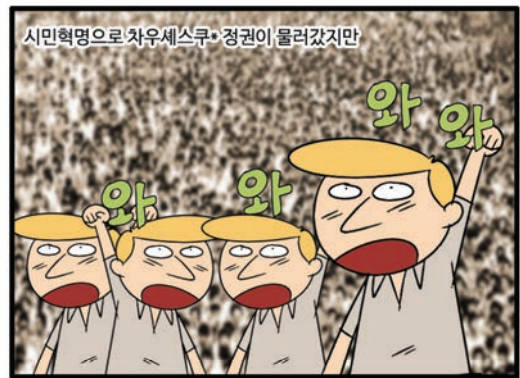
* Late Show with David Letterman : 미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 데이비드 레터맨이 진행하는 CBS의 심야 토크쇼 프로그램



* J.D.Power : 세계적인 마케팅 정보 서비스 회사로, 특히 자동차 분야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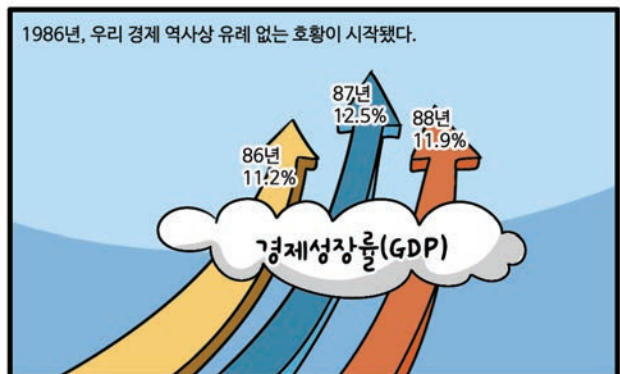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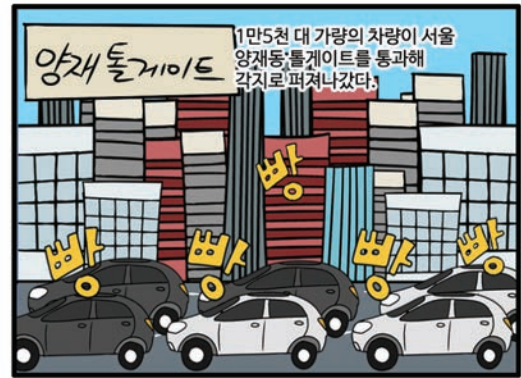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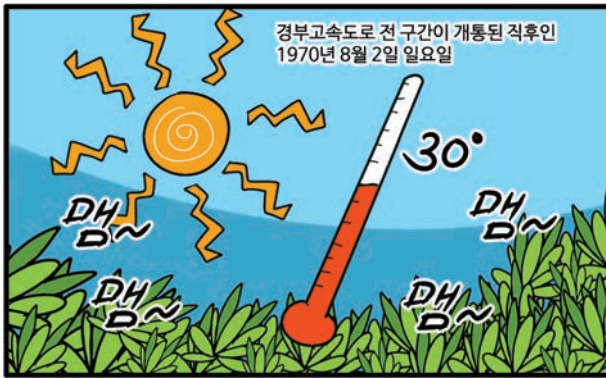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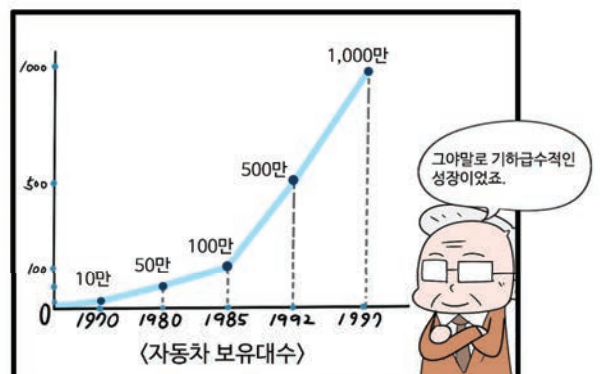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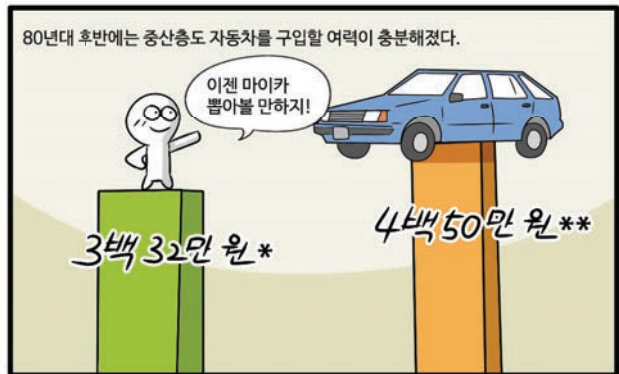




4. 마이카(my car) 시대, 자동차 대중화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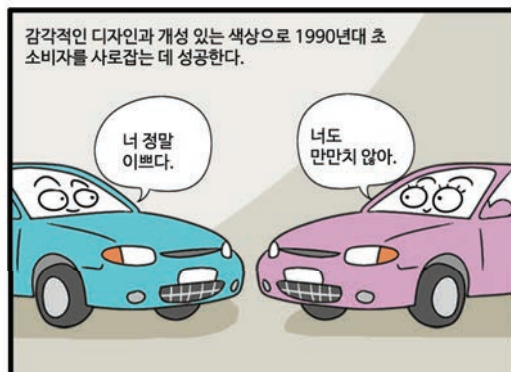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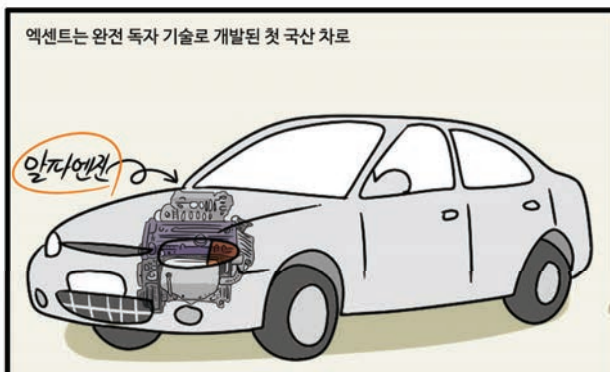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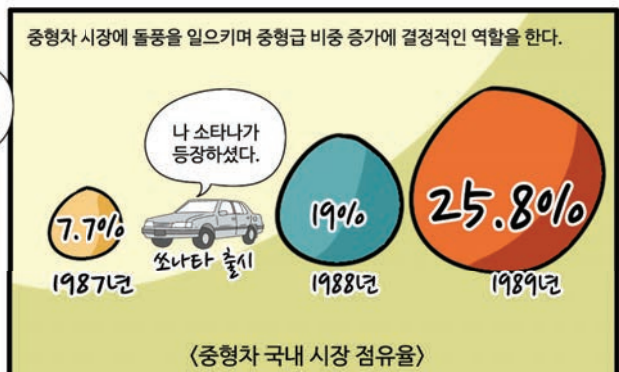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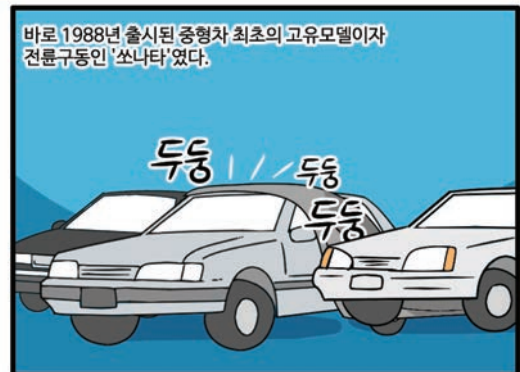
* 197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972년 소형차 평균가격



* 1988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 1988년 소형차 평균가격







이후 쏘나타는 꾸준한 세대교체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현대차의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는?

현대 (쏘나타)



그런데 사실 쏘나타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쏘나타’ 가문에는 비운의 형제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쏘나타(Y1)’였다.

쏘! 가 아니라 소오~



‘쏘나타’는 1983년 출시된 ‘스텔라’에 중형급 엔진을 탑재한 최상위 트림*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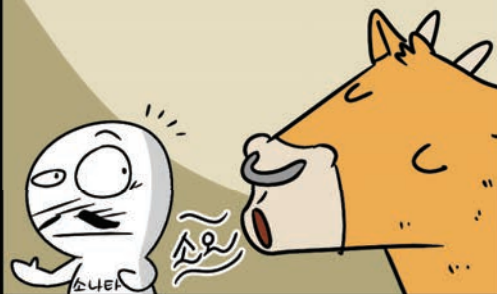
*트림: 같은 모델 내에서 세부성능과 사양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지어 출시한 차량

아직 소비자의 관심이 차량의 성능까지는 미치지 못해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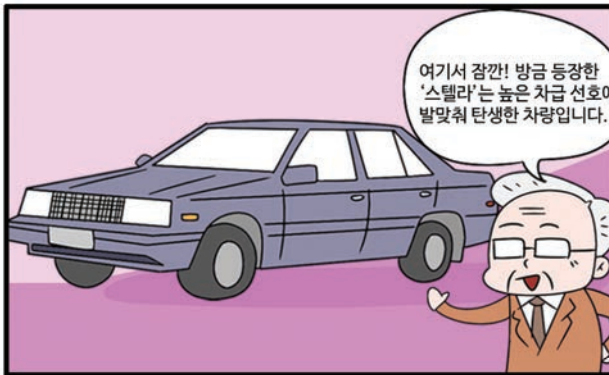
이거 스텔라랑 똑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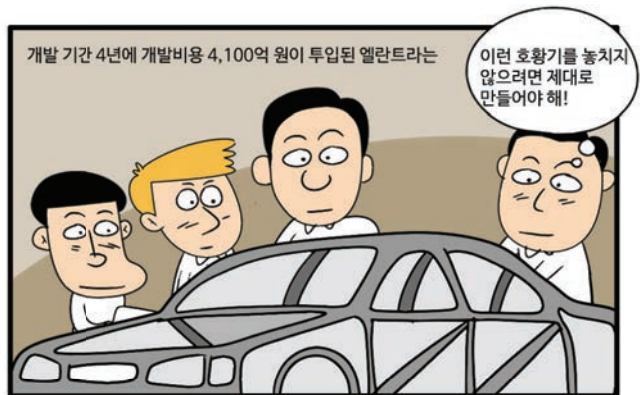


‘소나 타는 차’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쓸쓸히 퇴장하고 만 것이다.



* 페이스리프트: 자동차의 외관이나 실내구성 등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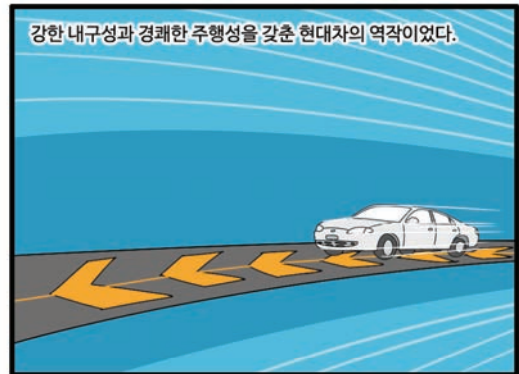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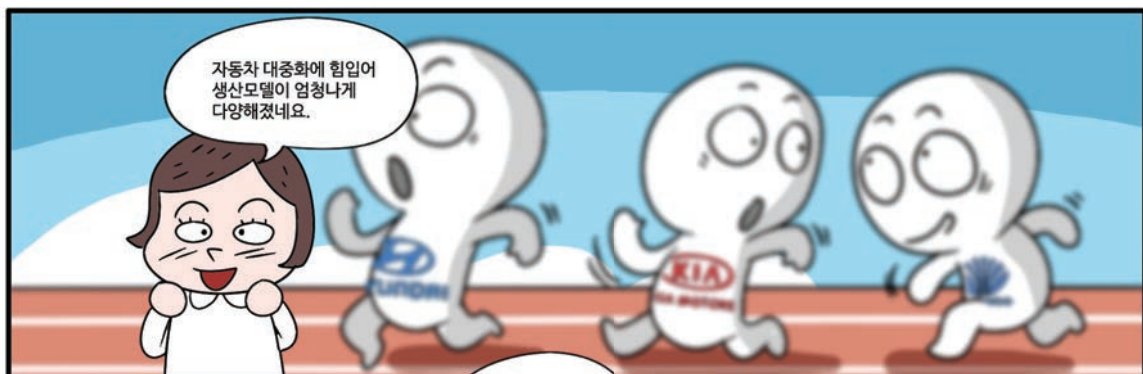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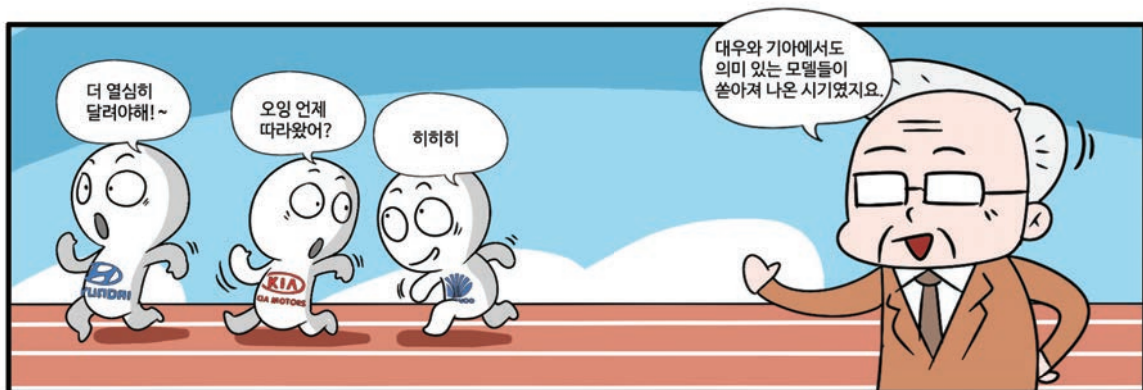


그 결과 엘란트라는 1995년 단종 되기까지 높은 판매고를 유지하면서

성적표					이름: 엘란트라
국내 판매 실적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4등	1등	1등	2등	







제6장 위기의 파고튼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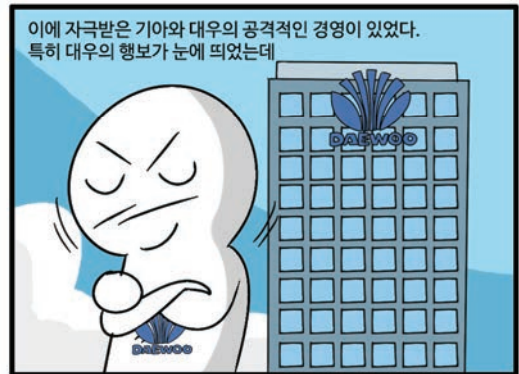


1. 자동차 산업에 드리운 먹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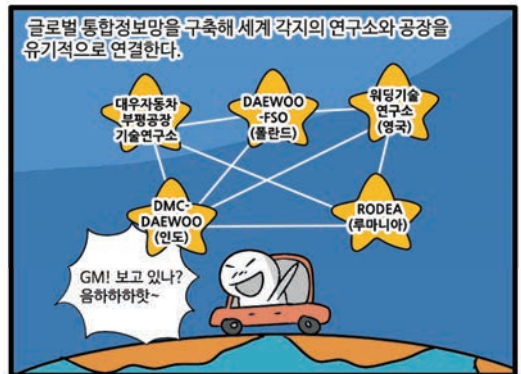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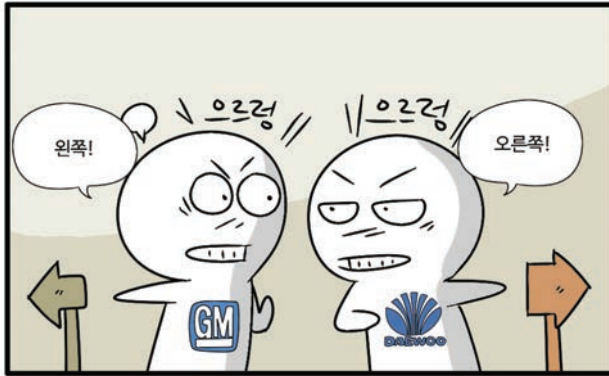


2. IMF 외환위기의 태풍,
한국 자동차의 길

1. 자동차 산업에 드리운 먹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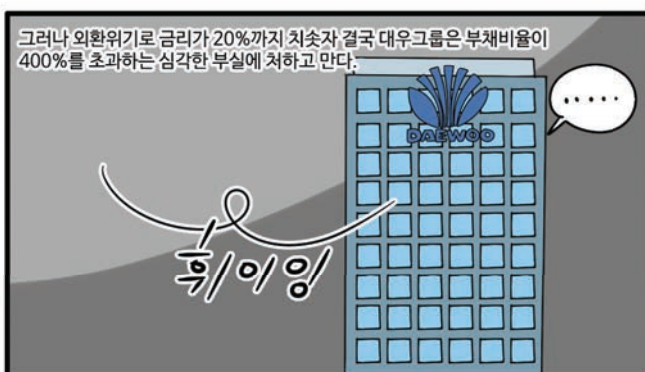


* 인수 당시 새한자동차의 지분은 산업은행과 GM이 50%씩 보유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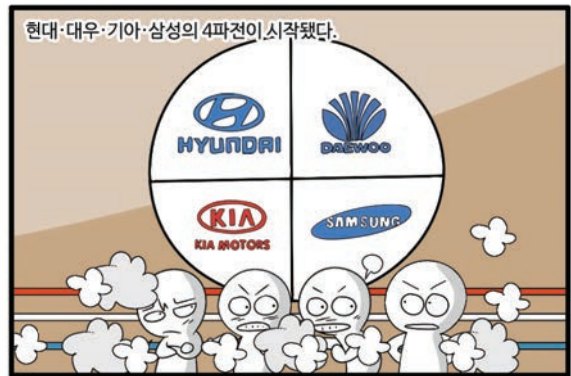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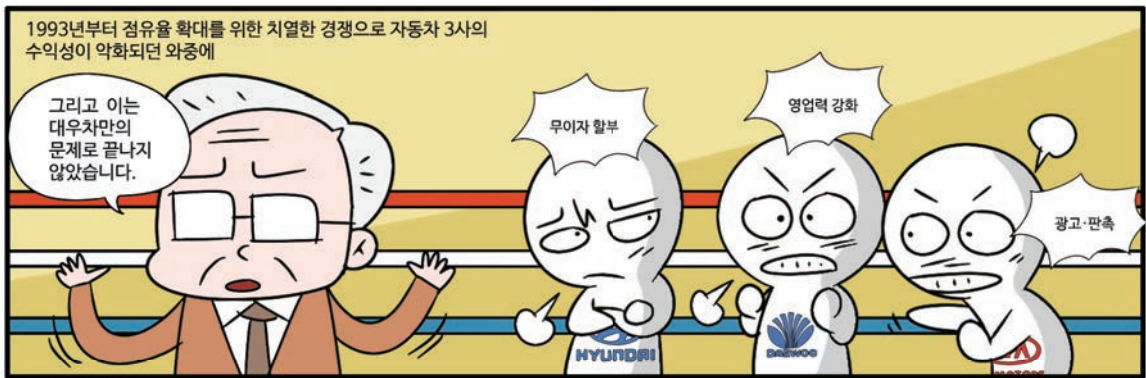


* 킵키즈칸 : 세계 전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킵키즈칸에 빗댄 당시 김우중 회장의 별명





* RV(Recreational Vehicle) : 캠핑카, SUV 등 레저용으로 적합한 차량





* 특수강 : 특수 원소를 첨가해 고강도와 고내구성을 구현한 강철의 한 종류

다음은 1995년 닛산과 손잡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삼성.
축제의 여운은 길지 않았다.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했고



세간에선 자동차 마니아인 이건희 회장이 그의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수군수군 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



이 회장의 열정은 불타올랐다. 연약한 갯벌 지반인 부산 신호공단에 공장을 짓느라
타 기업 공장 건설 비용의 3~5배에 달하는 돈을 쓰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는 등
과다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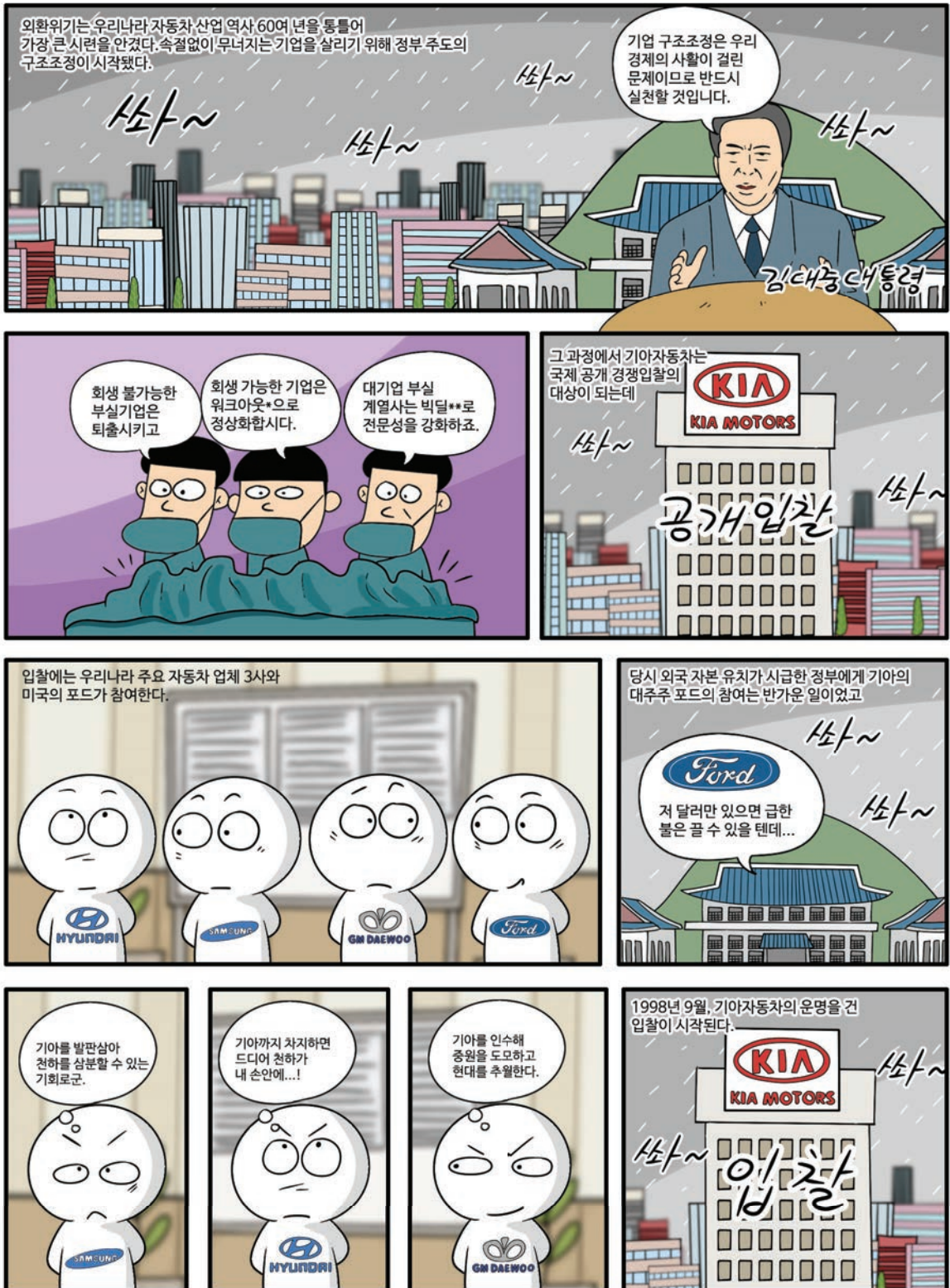
1998년 출시된 SM5 시리즈는 뛰어난 승차감과 안정성으로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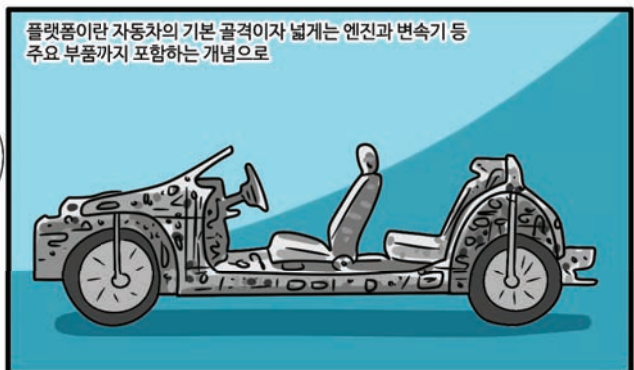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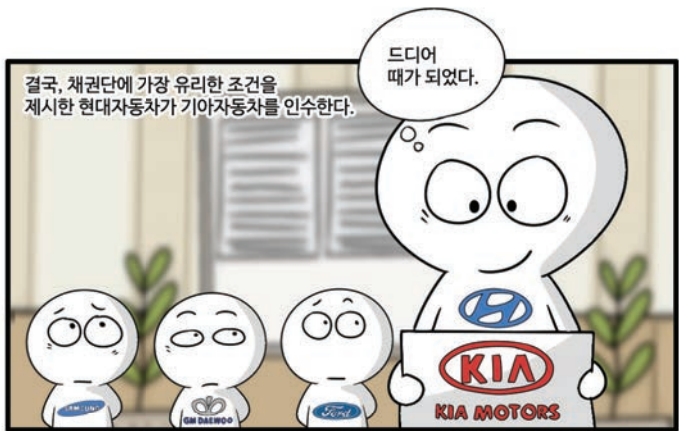
* 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비, 제품 등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 외화내빈 :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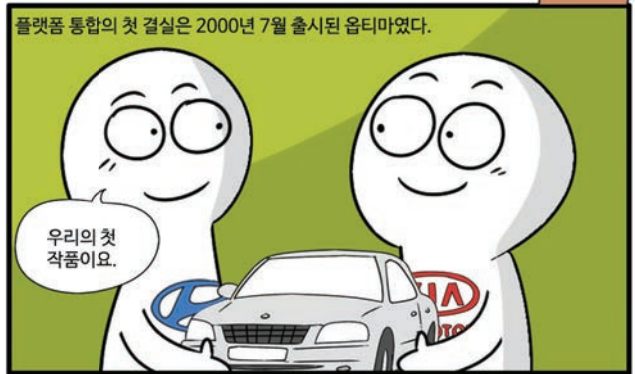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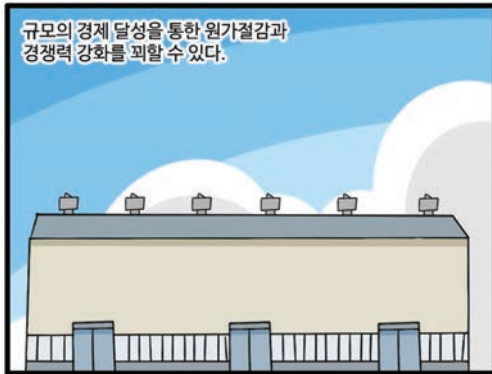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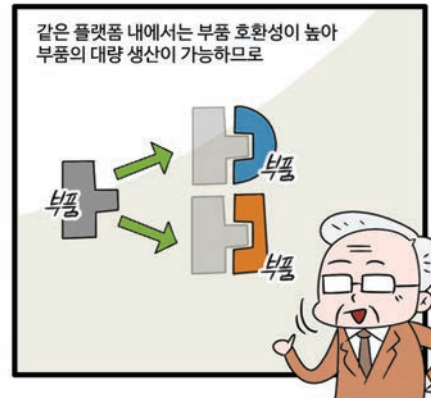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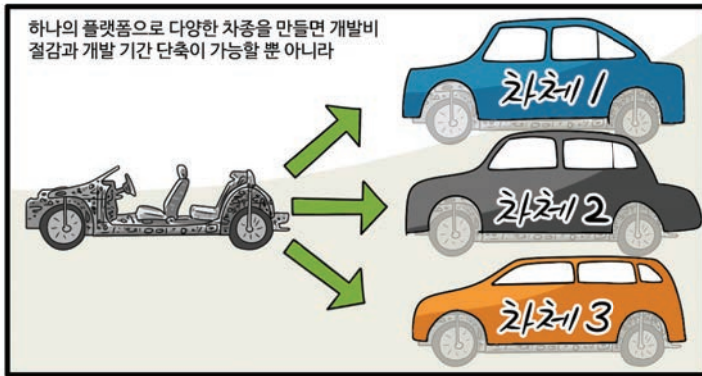
2. IMF 외환위기의 태풍, 한국 자동차의 길



*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기업구조조정 과정

** 빅딜 : 대기업 간 대형사업의 인수·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구조조정의 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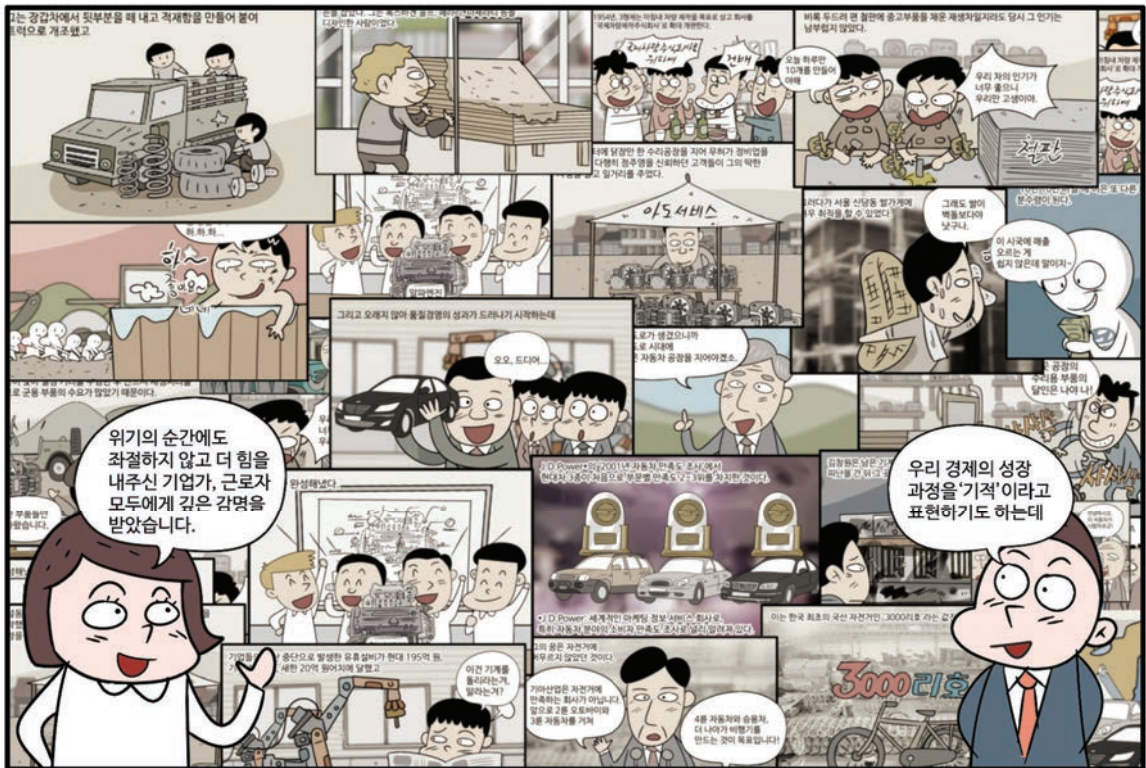




*현 현대글로비스









감수 이충구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회장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판 1쇄 인쇄 | 2017년 12월 22일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31일

발행인 정호영
기획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총괄진행 이정미·은형기 (KDI 경제정보센터)
마케팅 배광원, 조경영
편집 좋은회사
글 조수연
그림 유경민
표지 유경민

발행처 EBS미디어(주)
주소 06296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22 한국출판콘텐츠센터 4층
전화 02-529-5566
팩스 070-4340-4795
출판등록 2012년 6월 7일 (제2012-000203호)

ISBN 979-11-5859-272-1

